



행복한 용산,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2021 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성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행복한 용산,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2021 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성과보고서

Contents

CHAPTER 01	여는글	05
CHAPTER 02	용산SE 소개	06
CHAPTER 03	숫자로 보는 용산SE 성과	10
CHAPTER 04	용산SE 하이라이트	12

2021 키워드-용산, 사회혁신의 봄을 맞다

CHAPTER 05	[전문가 좌담] 용산구, 로컬과 사회혁신의 만남	18
	혁신기업 ①교육_(주)더스페이스프렌즈	24
	혁신기업 ②패션_(주)옴니아트	30
	혁신기업 ③다양성_톡투미다밥사회적협동조합	36
	혁신기업 ④여성_(주)29일	42
	혁신기업 ⑤환경_(주)율리아	48

CHAPTER 06	용산구 대기업 사회공헌활동 현황	54
CHAPTER 07	용산SE 함께가치 ①용산구 사회적경제 교육 네트워크 협업	60
CHAPTER 08	용산SE 함께가치 ②용산구 사회적경제 돌봄 네트워크 협업	64
CHAPTER 09	용산SE 주간행사	68
CHAPTER 10	코로나19 극복기	72
CHAPTER 11	전문위원 talk	74
CHAPTER 12	용산구 사회적경제 DB	80

CHAPTER 01

여는글

지역사회를 강타했던 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6차년(2021. 07 ~ 2022. 06) 사업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6차년 용산구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기업들의 성장이 돋보이는 시기였습니다. 성장기·성숙기 기업들의 매출이 지속해서 향상되고, 초기 우수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기업들의 안정적인 운영과 청년 기업을 비롯,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탑재한 기업들의 유입이 늘어나고 기업이 고도화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소규모 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의제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활발히 운영되었으며, 코로나19 속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역사회 밀착 돌봄서비스와 캠페인, 지역사회 공헌사업들이 지역주민들의 공감을 불러왔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건너는 시기, 용산구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이처럼 멈춤 없이 달릴 수 있었던 데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연대와 응원이 큰 힘이었습니다.

이제 어둠을 지나 빛으로 가득찬 미래로 나아갈 때입니다. 용산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7차년에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기업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나가겠습니다.

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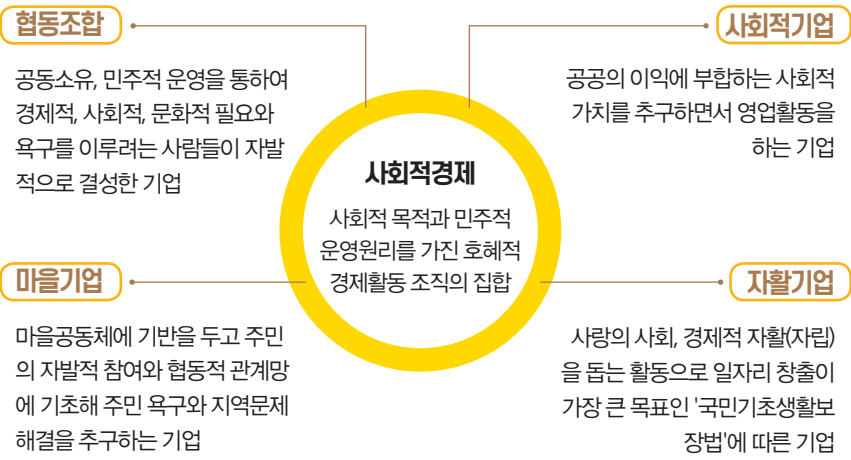
용산SE 소개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이다.

I 사회적경제의 기본원리

- 공동체의 보편적 이익 실현에 기여
- 자율적인 운영과 민주적 의사결정
- 사회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담보
- 자본과 이윤의 배분보다 사람과 노동중심의 경제



I 용산구 사회적경제 현황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용산구에는 2021년 12월 기준 총 188개 사회적경제기업이 활동 중이다. 이를 기반으로 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2021년 사회적경제 주체간의 교류, 협력을 통한 주체 역량 강화와 사회적경제 가치 실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I 업종 분포

전체	A 농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E 폐기물	F 건설	G 도소매
142(100)	2(1.4)	0(0.0)	18(12.7)	1(0.7)	1(0.7)	5(3.5)	21(14.8)
*중복기업 제외	H 운수	I 숙박	J 출판	K 금융	L 부동산	M 전문기술	N 시설관리
	3(2.1)	10(7.0)	11(7.7)	0(0.0)	3(2.1)	11(7.7)	7(4.9)
	O 공공행정	P 교육	Q 보건	R 예술	S 단체	T 자가소비	U 국제
	4(2.8)	22(15.5)	6(4.2)	7(4.9)	9(6.3)	1(0.7)	0(0.0)

I 용산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용산구 사회적경제 조직 네트워크 법인이 2019년 해산되었으나 이후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조직 중심의 네트워크가 별도로 구성되고, 현재는 의제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사업을 구축하고 의제별로 구체화를 위한 실행 단계를 수립하고, 현재는 기업 간 연대를 기반으로 공동판매장, 공동 교육, 다화용기 도시락 제작 등 협업사업들을 발굴 확대하고 있다.

분야	네트워크	참여기업(단체) 및 세부 내용	기업 수
돌봄	돌봄 네트워크 (20.07.~)	- 용산지역자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인사랑케어, 행복중심 용산생협, 다사리협동조합, 자활기업 더플랜트, 후암법상(지역관리기업), 더불어함께건축협동조합, 서울로마음목공협동조합, 사회적기업 ㈜트래쉬버스터즈 - 2020년부터 돌봄SOS 사업 참여 중. 식사지원, 일시재가, 세탁, 주거편의, 정서지원 등 서비스 수행 중 - 2020년 총 매출 85,976,820원 (6개 기업) - 2021년 총 매출 87,376,320원 (6개 기업)	9개 기업, 1개 기관
교육 문화	혁신교육 네트워크 (20.07.~)	- 용산역사문화사회적협동조합, 드림트리빌리지, 성심학교사회적협동조합, 다사리협동조합,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회적기업 교육협동조합 온지곤지, 톡투미다발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주)갯이어, 용산교육복지센터, 더스페이스프렌즈, 단꿈협동조합 - 현재 개별적으로 용산혁신교육지구 사업 참여 중. 21년도는 용산구 사회적경제 투어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공동사업 활발히 추진 중	10개 기업, 1개 기관
복지	복지 네트워크 (20.07.~)	- 아름다운가게 숙대입구역점, 동자동사랑방(민간단체), 행복중심용산생협, 사회적기업 드림트리빌리지, 고래이야기(민간단체) - 연1회 아름다운하루 행사 수익금 : 한부모가정 생활지원, 동자동 쪽방촌 생활환경 개선, 취약계층청소년 장학금 지원함. - 주관기관, 배분 대상 확대를 통한 다양한 의제 발굴 중 - 연 1회 행사를 3~4회로 확대 논의 중	3개 기업, 2개 단체
도시 재생	도시재생 네트워크 (20.07.~)	- 더불어함께건축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이시스타, 용산역사문화사회적협동조합, 서울로마음목공협동조합, 해방촌도시재생지원센터 - 서울시도시재생센터와 네트워크 구축. 도시재생사업, 교육 및 주거재생 등 공동사업 논의 중	4개 기업, 1개 기관

용산구 사회적경제



2021년 12월 기준
총 18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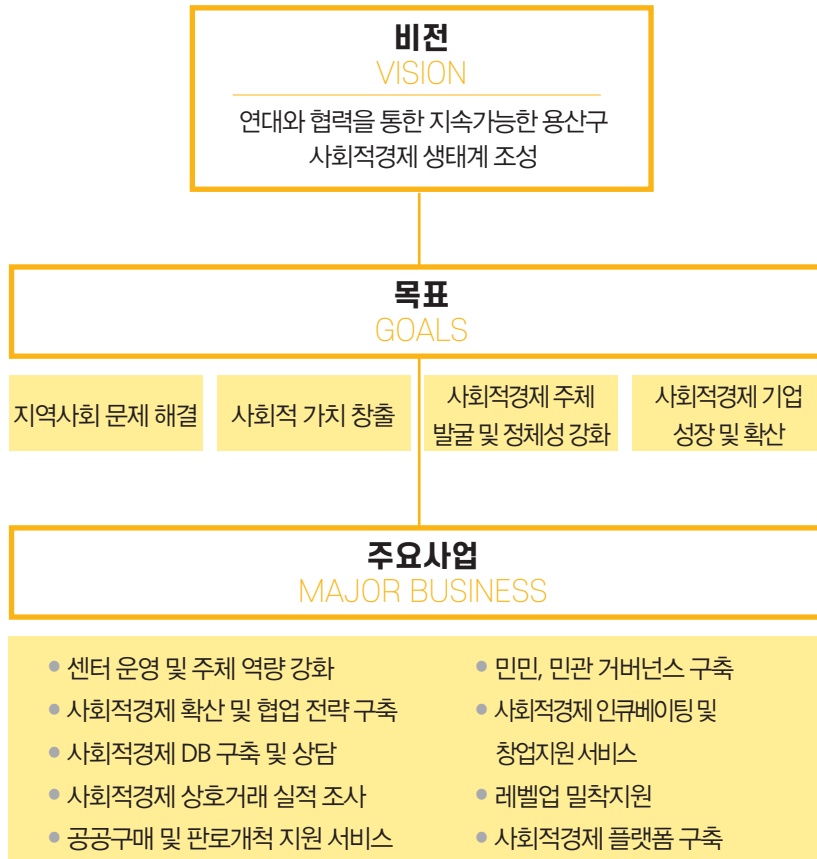


용산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분야	네트워크	참여기업(단체) 및 세부 내용	기업 수
마을 공동체	마을협력 네트워크 (20.07~)	- 용산교육복지센터, 용산햇동추진지원단, 용산지역자활센터, 효창복지관, 갈월복지관, 용산구 보육반장, 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 연계 - 마을 장터, 행사, 교육 등 연계 지원	7개 기관
마을 기업	마을기업 네트워크 (20.7~)	- 행복중심용산생협, 다사리협동조합, 단꿈협동조합, 더불어함께건축협동조합, 용산마을문화협동조합 - 마을기업 사업 공유, 공동 교육(회계, 사업계획서 작성 등)마을공동체 강화, 고도화 진입을 위한 피어컨설팅 등 추진	5개 기업
판로 개척	공동판매장 네트워크 (20.7~)	- 행복중심용산생협, 다사리협동조합, 단꿈한자공방, 해방촌니트협동조합, (주)29일, 용산마을문화협동조합, 특두미다법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지에스용산협동조합, 청년제빵, 마실 사업단 - 공동판매장운영 및 사회적경제 기업 판로개척 모색(행복중심용산생협,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민리사재 카페 입점 운영)	8개 기업 2개 사업단

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용산구의 건강하고 튼튼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기반의 협업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성장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지원한다.



I 연혁

2021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3년차

2021. 07. 02 ~ 2021. 07. 09 사회적경제 기념주간 프리마켓
 2021. 07. 08 ~ 2021. 07. 09 사회적경제 기념주간 영화제
 2021. 09. 14 용산구사경장터 추석맞이 제품 특별판매전
 2021. 09. 29 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비전 수립 워크샵
 2021. 10. 1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2021. 10. 15 10월 용산구 사회적경제 장터
 2021. 10. 28 2021 용산구 사회적경제 컨퍼런스 '사회적경제의 힘'
 2021. 10. 30 ~ 2021. 11. 06 용산구 교육 네트워크 사회적경제 투어 시범사업
 2021. 11. 04 나눔의집 공동체 워크샵
 2021. 11. 17 ~ 2021. 12. 22 2021 용산구 사회적경제 ESG 아카데미
 2021. 12. 07 용산구 사회적경제 지역사회 돌봄 포럼
 2021. 12. 09 아름다운 하루(아름다운가게 숙대입구역점)
 2021. 12. 21 ~ 2021. 12. 23 사무국 역량강화 교육·퍼실리테이터 교육
 2021. 12. 30 2021 용산구 사회적경제 휴먼라이브러리
 2022. 01. 03 ~ 2022. 01. 14 용산구 사회적경제 상호거래 실적조사
 2022. 01. 18 사업계획수립 워크샵
 2022. 01. 25 ~ 2022. 01. 27 용산구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 총회 준비교육
 2022. 02 ~ 용산구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연구용역
 2022. 03. 15 ~ 2022. 03. 24 사회적경제 기업 적정 세무·회계 그룹 컨설팅
 2022. 04. 05 주민기술학교 - 반려견을 위한 아로마 제작 교육
 2022. 04. 16 ~ 2022. 05. 07 주민기술학교 - 간단 집수리 학교
 2022. 04. 23 특두미다법사회적협동조합 다문화 요리 교실
 2022. 04. 27 윤리경영실천 협약식
 2022. 05. 02 용산구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라이브 쇼핑
 2022. 05. 02 ~ 2022. 05. 27 사회적경제 현장 역량강화를 위한 모듈학습
 2022. 05. 03 ~ 2022. 06. 16 공공구매 집합형 코칭과정
 2022. 05. 12 ~ 2022. 05. 14 사무국 연수

2020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2년차

2020. 07. 29. 2020 용산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행사 - 자정면데이
 2020. 08 ~ 12 2020 용산구 주민기술학교 운영 (정리수납, 반려견 돌봄 활동가 양성 과정)
 2020. 08 ~ 12 우리동네 나눔반장 운영
 2020. 08. 20 SE아카데미 - 사업계획서 작성법
 2020. 08. 26 SE아카데미2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2020. 09. 01 ~ 2019. 12. 15 공공구매 및 판로개척 지원 홍보 영상 제작
 2020. 09. 01 ~ 2020. 12. 31 공공구매 및 판로개척 지원서비스 - 온라인장터 운영
 2020. 10 ~ 12 2020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협업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 운영
 2020. 10 ~ 11 2020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맞춤형 아카데미 운영
 2020. 11. 17 2020 용산구 사회적경제 컨퍼런스
 2020. 12. 14 용산구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설명회 및 컨설팅
 2020. 12. 15 ~ 용산구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구축

2020. 9. 1 ~ 2019. 12. 20 연구용역용산구사회적경제네트워크활성화를위한중장기전략수립
 2021. 02. 22 ~ 2021. 02. 25 SE아카데미사업제안서 작성법, 사회적경제기업 적정 세무와 회계 교육
 2021. 02. 15 ~ 2021. 03. 05 용산구 사회적경제 정보구축사업
 2021. 03. 26 ~ 2021. 03. 31 주민기술학교 특강·정리수납 교육
 2021. 03. 30 2021 용산구 사회적경제 여성리더십 포럼
 2021. 04. 01 ~ 2021. 05. 31 용산구 사회적경제 기업 크라우드펀딩 추진
 2021. 04. 13 ~ 2021. 04. 30 용산구 교육기업 사회적경제 기본교육
 2021. 04. 15 용산구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활성화 지원 사업
 2021. 04. 22 ~ 2021. 05. 05 용산구 사회적경제기업 프리마켓 운영
 2021. 05. 12 ~ 2021. 05. 13 협동조합 설립 교육
 2021. 05. 26 ~ 2021. 05. 27 용산구 사회적경제 기업 마케팅 교육
 2021. 06. 08 용산구 교육기업 네트워크 워크샵
 2021. 06. 25 용산구 사회적경제 지역사회 자원조사
 2021. 06. 28 협동조합 설립 교육 - 정관작성편

2019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1년차

2019. 03. 15 ~ 2019. 06. 30 2019 의제네트워크 돌봄 - 치매인지향상프로그램
 2019. 03. 15 ~ 2019. 11. 30 2019 의제네트워크 시니어 - 멋쟁이 시니어 합창단
 2019. 03. 27 ~ 2019. 12. 26 용산사회적경제기업 팟캐스트 제작 (안녕하SE 용산)
 2019. 04. 01 ~ 2019. 09. 30 용산사회적경제기업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
 2019. 04. 10 ~ 2019. 09. 30 어린이 안전먹거리 및 마을 교육인큐베이팅
 2019. 09. 01 ~ 2019. 12. 31 2019 사경센터 동료컨설팅사업
 2019. 10. 02 2019 용산구 마을자치박람회 참여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2019. 11. 05 ~ 2019. 11. 29 2019 용산구사회적경제기업 - 맞춤형 밀착컨설팅운영
 2019. 11. 28 ~ 2019. 12. 04 용산사회적경제 홍보 전시부스 운영
 2019. 12. 09 2019 용산구 사회적경제종사자 협력네트워크데이

2018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사업단 3년차

2017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사업단 2년차

2016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사업단 1년차

용산구 사회적경제 사업 성과

숫자로 보는 용산SE 성과



용산구 사회적경제 조직 수(2021년 12월 기준)

188개소



네트워크 수

(돌봄, 혁신교육, 복지, 도시재생, 마을협력, 마을기업, 공동판매장)

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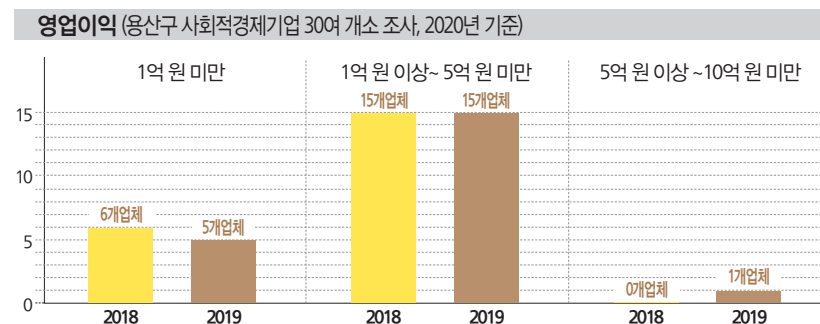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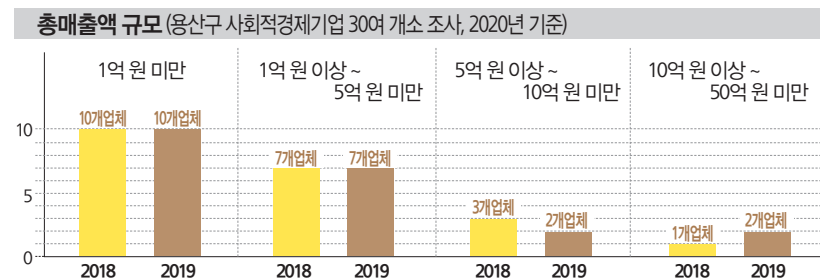
사회적경제 간 상호거래액 (2021.1~12월 기준, 구매건수 85건)

146,839,580원



돌봄SOS센터사업 참여 7개 사회적경제 기업 매출액(202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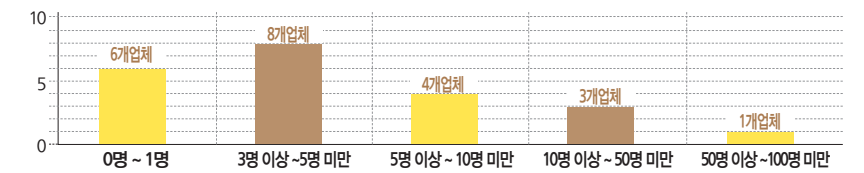
401,258,64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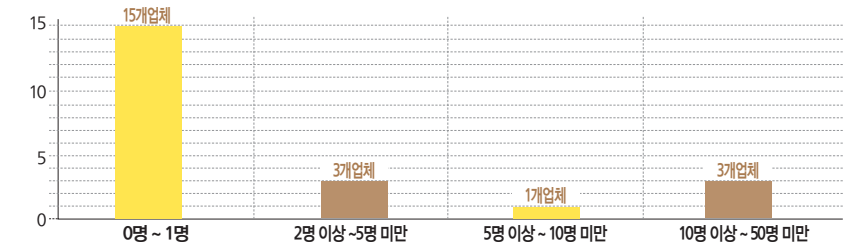
용산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지원 성과

총기업수
17개

사회적경제기업 총 근로자 수 (용산구 사회적경제기업 30여 개소 조사, 2020년 기준)



사회적경제기업 취약계층 근로자 수 (용산구 사회적경제기업 30여 개소 조사, 2020년 기준)



I 사회적경제 시민 체감도 향상

- 1,726명 사회적경제교육 참여자(64회, 2021년 기준 / 33회 371명 참여)
- 241명 사회적경제 민관 네트워크(사경센터 운영위, 돌봄SOS 등) 참여자(20회 운영)
- 3회 사회적경제 이해 영상 제작(사회적경제 기업 홍보 등)

I 사회적경제 판로 개척

- 3회 사회적경제주간 프리마켓 운영
- 7회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판로개척을 위해 공동판매장 운영(8,529,200원 매출)
- 5개 사회적경제 클라우드펀딩 지원 기업(2,748,000원 매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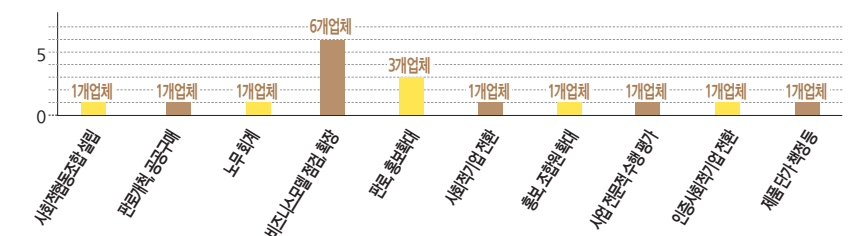
I 지역 내·외부 인적 물적 자원 연계 지원

- 6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기관(성공회대,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특별시도시재생지원센터, (주)코이로, HBM사회적협동조합,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 600만 원 SRT 굿즈 제작 지역 협동조합 연계 매출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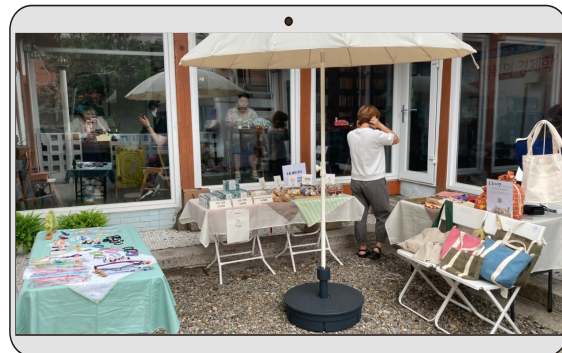
I 사회적경제 기업 컨설팅 지원

사회적경제 설립을 위한 상담, 기업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연계로 사회적경제 설립 지원의 역할을 하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 체감도가 갈수록 상승

17개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연계 (2021. 4월 기준)



용산SE 하이라이트



2021. 07. 02 ~ 07. 09

사회적경제 주간 맞이 '사회적경제 플리마켓'

사회적경제 주간을 맞이해 센터와 용산지역자활센터 공동주관으로 아름다운가게 세대입구역점, 행복중심 용산생협 이현매장, 만리서재에서 사회적경제 플리마켓을 진행했다.



2021. 07. 08 ~ 07. 09

사회적경제 주간 맞이 '사회적경제 영화제'

사회적경제 주간을 맞이해 용산구 사회적경제 영화제를 진행하고,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영화 <행복의 경제학>을 함께 본 후 저자와의 대화시간을 가졌다.



2021. 07. 13

사회적경제 주간 맞이 '사회적경제 응원 뮤직비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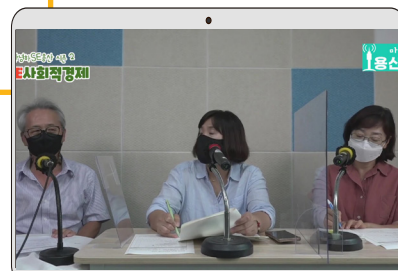
사회적경제 주간을 맞이해 용산구 사회적경제 기업가들이 이한철의 <슈퍼스타>를 함께 부르며 사회적경제인들을 응원하는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2021. 07. 13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 업무협약 체결

센터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과 업무 협약을 맺고 용산구 소상공인 사업장 정리수납 컨설팅 사업을 시작으로 협력을 약속했다.



2021. 07. 26

용산FM 사경라디오 1회

용산FM과 함께 용산구 사회적경제기업을 소개하는 라디오 코너로, 첫 번째 이야기 손님에 더불어함께건 축협동조합이 함께했다.



2021. 08. 23

용산FM 사경라디오 2회

용산FM과 함께하는 라디오 방송 용산구 사회적경제기업 2회에는 (주)더스페이스프렌즈 김현욱 대표가 참여했다.



2021. 09. 14

SE공동 판매장 2호점 오픈과 만리서재 SE마켓

서계동에 위치한 한옥카페인 만리서재에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2호점이 오픈해 그 기념으로 '만리서재 SE마켓'이 열렸다.



2021. 09. 27

용산FM 사경라디오 3회

용산FM과 함께하는 라디오 방송 용산구 사회적경제기업 3회에는 (주)29일의 홍도겸 대표가 참여했다.

2021. 10. 15

만리서재 SE마켓 개최

'만리서재 SE마켓'이 열리면서 '공예 체험 교실'과 '용산마을 삼삼오오 스탬프 투어'가 운영되었다.



2021. 10. 25

용산FM 사경라디오 4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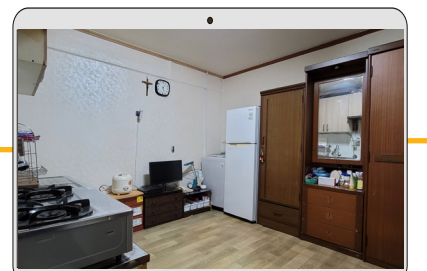
용산FM과 함께하는 라디오 방송 용산구 사회적경제기업 4회에는 (주)두근두근의 조정혜 대표가 참여했다.



2021. 10. 30/ 11. 06

교육네트워크 용산구 사회적경제 투어 시범사업

용산구 사회적경제 교육 네트워크는 첫 협업사업으로 '용산구 사회적경제 투어 시범사업'을 두차례 진행했다.



2021. 11. 08/ 11. 15

지역돌봄 시범사업 정리수납 서비스 지원

돌봄SOS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주민기술학교 수강생들이 자원봉사 정리수납이 필요한 가정에 정리수납 서비스를 지원했다.

2021. 11. 17 ~ 12. 26

사회적경제 ESG 아카데미

용산구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용산구 사회적경제 ESG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2021. 12. 09

센터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루

아름다운가게 세대입구역점에서 '아름다운 하루'가 열렸으며, 수익금은 용산교육복지센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의 가정에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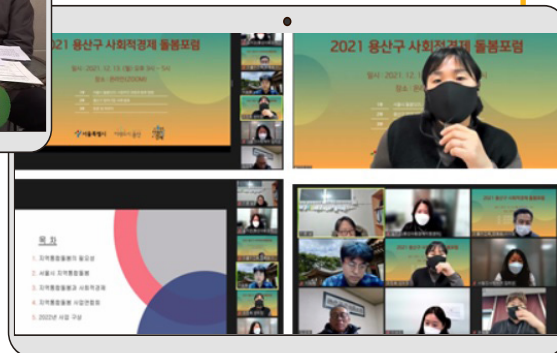
용산SE 하이라이트



2021. 11. 30

용산FM 사경라디오 5회

용산FM과 함께하는 라디오 방송 용산구 사회적경제기업 5회에는 다함께 움직이는 협동조합 이우식 이사장이 참여했다.



2021. 12. 13

2021년 용산구 사회적경제 돌봄 SOS 지역사회 포럼

용산구 사회적경제 돌봄 네트워크를 돌아보는 2021년 용산구 사회적경제 돌봄 포럼을 온라인 줌으로 진행했다.



2021. 12. 28

용산FM 사경라디오 6회

용산FM과 함께하는 라디오 방송 용산구 사회적경제기업 6회에는 사회적협동조합 인사랑케어 김미선 이사장이 참여했다.



2021. 1. 24

용산FM 사경라디오 7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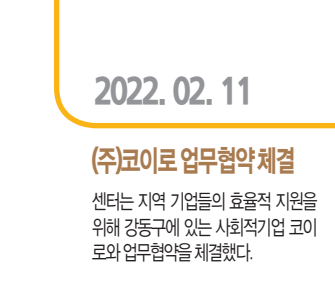
용산FM과 함께하는 라디오 방송 용산구 사회적경제기업 7회에는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의 김신동 이사장이 참여했다.



2022. 01. 27

2022 협동조합 총회 준비 교육

협동조합 총회준비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총 2회 4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2022. 02. 11

(주)코이로 업무협약 체결

센터는 지역 기업들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강동구에 있는 사회적기업 코이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2. 02. 21

용산FM 사경라디오 8회

용산FM과 함께하는 라디오 방송 용산구 사회적경제기업 8회에는 용산역사문화사회적협동조합의 황혜원 이사장이 참여했다.



2022. 04. 05

반려견 아로마용품 제작 교육

2020년 주민기술학교 반려견 교육과 연계해서, 지역 주민들이 환절기 대비 반려견 용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반려견 아로마용품 제작 교육을 진행했다



2022. 03. 15

사회적경제기업 적정 재무세무 그룹컨설팅

3월 15일부터 2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정 재무세무 그룹컨설팅을 진행했다.



2022. 03. 21

용산FM 사경라디오 9회

용산FM과 함께하는 라디오 방송 용산구 사회적경제기업 9회에는 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김진숙 전문위원이 참여했다.



2022. 04

용산구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연구

용산구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연구를 진행했다.



2022. 02. 22

HBM 사회적협동조합 업무협약 체결

센터는 협동조합 창업과 경영에 전문성을 가진 HBM사회적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동조합 창업 상담,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2. 03. 14

사회적경제 상호거래 우수기업 시상

센터는 2021년 용산구 사회적경제 상호거래 우수기업으로 취약계층에게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주)드림트리빌리지'를 선발했다.



[2021 키워드]

용산, 사회혁신의 봄을 맞다

용산구에 봄이 찾아왔다. 사회혁신의 봄!

서울의 중앙에 위치한 용산이 사회혁신의 아이콘으로 거듭난다. 최근 용산에서는 창의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회적 아젠다는 무엇이며, 그 속에서 사회혁신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국내 사회적경제의 흐름, 그리고 용산지역 사회혁신기업들의 움직임을 함께 정리해보았다.

- 18 [전문가 좌담] 용산구, 사회혁신과 로컬의 만남
- 24 혁신기업①교육_(주)더스페이스프렌즈
- 30 혁신기업②패션_(주)옴니아트
- 36 혁신기업③다양성_특수미디어밥사회협동조합
- 42 혁신기업④여성_(주)29일
- 48 혁신기업⑤환경_(주)율리아

사회문제 해결 위한 다양한 노력들

세계는 지금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변화가 한창이다. 이러한 기술진보는 도시는 물론 노동, 교육, 직업 등 인프라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 성장으로 인류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편리해졌다. 그러나 빠른 기술발전과 경제 성장은 자연환경의 훼손과 자원 고갈, 지역·국가간 빈부격차 등과 같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면서 기존에 있던 사회문제를 더욱 증폭시키는 것은 물론, 새로운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면서 사회적 불평등 문제는 심화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공동체의 붕괴, 노동 양극화,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 심화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다. 갈수록 사회문제가 복잡해지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유럽연합과 북미에서는 사회혁신이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의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았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 시도는 국내에서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서울시는 지자체지만 공공조직을 통해 사회혁신을 확산시켜 서울을 세계적인 사회혁신 수도로 만들었다. 도시가 직면한 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커뮤니티를 구성하거나 리빙랩, 펌랩, 해커스페이스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공유경제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개별 기업의 사회혁신 움직임도 활발하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요 미션으로 삼고 탄생한 조직인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용산구의 명암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용산구는 남쪽 한강과 북쪽의 남산을 경계로 6개 자치구와 접한 자치구이다. 도심공원이 많아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외국 공관차와 문화원, 이태원관광특구 등이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경부고속철도의 중앙역사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용산역과 첨단 전자산업의 중심인 용산전자상가 및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한강로 일대의 국제정보·행정업무 주요 핵심지구로의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향후 서울을 경제·문화·행정의 중심지로 크게 탈바꿈시킬 자치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용산구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2022년 3월 기준, 용산구 인구는 222,169 명으로 서울시에서 3번째로 인구가 적다. 용산역, 한남동 주변의 재개발로 인해 당분간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 인구도 17.1%로 우리나라 평균(16.1%), 서울시 평균(15.9%)보다 비율이 높다. 용산구의 노인복지 인구 통계 현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2021년 현재 1,603명이며, 기초노령 수급자 14,476명, 치매노인 등록자 1,446명, 독거노인(차상위) 423명으로 꾸준히 증가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용산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용산구에는 기업체가 많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서울시의 2.0%), 금융 및 보험업(서울시의 2.37%), 출판·영상·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서울시의 2.1%), 부동산업(서울시의 2.76%) 등 전문 분야 기업들이 많다. 아모레퍼시픽, CJ OGV, 오리온재단 등 대기업들도 포진해 있다. 원효동과 한강로동에는 IT 관련 소규모 도소매 업체와 관광서비스 관련 사업체가 밀집되어 있다. 이처럼 다수의 산업체가 밀집되어 용산구 재정자립도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상위권이다. 그러나 노동시장 구조가 비정규 계약직이 많이 종사하는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어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안정적인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청년층 및 전문인력의 유입을 위한 정책과 고령자 일자리 창출 및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역문제 해결 주체로 주목 받는 사회적경제

이러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 주체로 사회적경제가 주목 받고 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개발 기획연구(2020년)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하고 경제 위기를 겪게 될 경우 고용보장 및 참여소득제와 결합되어 새롭게 정체성을 확립한 사회적경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연구보고 되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결과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반등을 견인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산구 사회적경제 조직은 188개(2021년 말 기준)개다. 일반협동조합이 129개소로 가장 많고, (예비)사회적기업 27개소, 사회적협동조합 22개소, (예비)마을기업 7개소, 자활기업 3개소 순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사회적기업이 많은 자치구이다. 용산구에는 돌봄, 서비스, 문화·예술, 교육 등 업종별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활동한다. 최근에는 초기 우수 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안정적인 운영과 청년기업을 비롯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탑재한 기업들의 유입이 늘어나고 기업이 고도화되는 추세이다. 협동조합 주체도 다양해지고 지역 기반의 협동조합 설립은 물론 마을기업의 설립도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해 노숙자 일자리 연계, 경력단절 여성 활동 지원,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주민기술학교, 돌봄SOS사업, 사회적경제 의제별 포럼, 컨퍼런스, 아카데미 등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속에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이러한 활동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주체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다. 주민기술학교의 경우 지역의 현황을 반영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지역 주민들의 참여율이 높아 향후 지역관리기업 설립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용산구, 사회혁신과 로컬의 만남



용산구라는 지역에서 사회혁신은 어떻게 가능한지,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 주체로 사회적경제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전문가 3인(이수연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이사·전 행정안전부 사무관, 조정옥 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센터장, 홍찬욱 강동구 가축패션창업지원센터장·코이로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 재발견하고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 창출

사회자 용산구 지역활성화와 사회혁신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 국내 사회혁신의 흐름에 대해 먼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수연 행정안전부에서 일했기에 행정기관의 관점에서 사회혁신이 어떻게 국내에 안착했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국내에 사회혁신이라는 개념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통해서입니다. 희망제작소를 통해 사회혁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 의미 있는 결과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초창기 대표적인 사회혁신 사례로는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폐목재를 활용해 가구를 만드는 업사이클링 기업 '문화로놀이방', 공간공유 서비스 플랫폼 시장을 개척한 '스페이스클라우드' 등이 있습니다. 이런 모델이 성장하고 국내에 사회혁신 흐름을 확산하는데 서울시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회혁신가들의 집적단지인 사회혁신플랫폼 '서울혁신파크'를 조성하는 등 공공조직을 통해 사회혁신을 확산시켜 서울을 세계적인 사회혁신 수도로 발돋움시켰습니다. 농촌 사회혁신의 대표적인 모델로는 '완주군'을 꼽을 수 있습니다. 기존 한국사회에서는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을 유치해 지역발전을 이룬데 반해, 완주군은 국내 최초로 지역 내 자원이 순환하는 구조를 고민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농촌과 도시가 교류하는 내생적 발전방안을 주요전략으로 삼아 지역발전을 견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혁신이 중요한 국정과제가 되면서 사회혁신추진단이 만들어지고 행정안전부 내 정규부서에서 사회혁신을 주요 아젠다로 다루며 사회혁신 정책이 중앙정부로 안착하였습니다. 문 정부에서는 민간이 직접 참여해 공공의 공간을 조성하는 '소통협력공간사업', 지자체·공공기관·지역사회 사회혁신 주체들이 함께 지역 혁신을 고민하는 '지역혁신포럼', 실패 경험의 자산화 및 재도전을 지지하는 정책과 문화를 확산하는 '실패박람회' 등을 시도했습니다. 문 정부에서 많은 사회혁신 정책을 시도했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민간과 행정의 속도가 다른 점, 사회혁신이 정책 전반에 시스템으로 자리하기 보다는 몇 가지 사업화로 그친 점 등은 여전히 과제입니다.

조정옥 4차산업에서 중요한 게 결국은 사람, 혁신입니다. 사회변화에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진 곳이 행정이기 때문에 민간의 욕구만큼 혁신적인 생각과 시도가 가능한 공무원조직도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용산구의 경우 청년 기업을 비롯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탑재한 기업이 많습니다. 용산구 기업 중 하나인 트래쉬버

스터즈는 일회용품 대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등에 플라스틱 컵과 접시, 포크, 숟가락 등 다회용품을 가져가 대여해 주고 수거를 해 세척까지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기업입니다.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에 부담을 가지던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인 한국 갭이어(Gap Year)도 용산구 혁신기업 중 하나입니다. 심각한 취업난 등 한국의 청년들이 겪는 문제해결을 위해 진로 탐색을 돕는 일을 합니다. 혁신적인 아이템을 가진 기업들이 많지만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큼니다. 혁신은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기도 하기에 센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잘 연결해 지역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회 가치를 만들고자 합니다. 서울시와 함께하는 돌봄SOS사업에 트래쉬버스터즈 기업을 연결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는 것 등이 바로 그런 노력입니다.

홍찬욱 전국을 다니며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을 보게 되는데요. 공통적인 문제가 아젠다는 좋은데 그걸 해결할 솔루션(기술, 지식 등)이 없다는 점입니다. 앞서 센터장님의 말대로 기존에 존재하는 것을 재발견하고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 자본도 기술도 없는 소기업들이 시도할 수 있는 혁신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주 사회적기업인 '공심채'가 그런 혁신기업입니다. 공심채는 제주지역의 소농이나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연결해 새로운 판로를 열어줌으로써 제조농업이 지속가능하도록 돕습니다. 저는 그런 혁신기업들이 동네마다 하나씩만 있다면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생태계도, 지역 변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혁신 아이디어, 사회로 더 확산하는 방안 고민해야

사회자 얘기하디 보니 자연스럽게 혁신기업에 대한 정의를 논하게 됩니다. 각 주제에 따라 혁신기업을 정의하는 것도 조금씩 다른 듯 합니다.

조정욱 중간지원기관에서 일하며 정의한 사회혁신기업은 사회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는 기업입니다. 다만 사회문제를 규정할 때, 새로운 방식을 고민할 때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지역적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이라고 완전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의 방식과 기술을 연결하고 새롭게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닐지.

홍찬욱 저는 사회혁신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나'가 아닌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라 봅니다. 기술이 새롭다고 무조건 혁신일까요? 혁신의 사전적 정의가 기존의 방법을 새롭게 바꾼다는 '이노베이션(innovation)'의 의미도 있지만, 기존 자원이 가진 잠재력을 더 높여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혁신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 내 이미 존재하던 자원을 재발견하고 그것을 꼬집어내서 사업적으로 해결하는 기업도 혁신기업입니다.





이수연 일반적인 사회혁신의 정의는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민의 참여와 협력,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방식, 해결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입니다.

사회자 한국사회에서 사회혁신을 실현하는데 나서는 어려움, 한계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이수연 사회혁신가 1인에만 너무 주목한다는 점입니다. 1인에 집중되다 보니 한 사람의 변화가 커뮤니티 전체로 퍼져 나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시스템(제도)과 혁신가의 아이디어가 결합해 시너지가 나고 사회 전체로 확산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여전히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행정·중간지원조직·기업 각 주체를 제 역할해야 생태계 강화

사회자 사회혁신을 고민하고 실현하는 각 주체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홍찬욱 사회혁신이 지역사회 안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실현되고 혁신기업들이 성장하려면 안정적인 시스템의 마련이 중요합니다. 행정의 경우 이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 등 시스템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문제를 더 세분화해서 동 단위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설정하고 고민하고 그에 맞는 해결주체를 적극 결합시켜야 합니다. 민간(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담론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고민에만 매몰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솔루션에 더 집중했으면 합니다. 거대한 화두보다 지역을 들여다보고 작은 과제부터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수연 앞서 얘기해주셨듯이 행정은 기본적인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사회적경제나 사회혁신을 사업으로만 가두지 않고 지역을 바꾸는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면 더 많은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서 간 경계를 허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간지원조직의 경우 사회혁신을 통해 지역사회 변화를 불러온 좋은 사례를 바탕으로 행정의 변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예로 영국의 경우 지역순환경제를 지향하며 보조금에서 공공구매로 전환하며 사회적경제를 통한 공공조달 시장을 확대했습니다. 이처럼 지역거점기관과 어떻게 지역 사회적경제가 만나도록 할지를 적극 고민해야 합니다. 민간은 풀고자 하는 사회문제를 더 명확하게 하고, 우리의 활동이 사회를 바꾸고 공동체를 바꾼다는 기업가정신을 더 강화시켜야 합니다.

조정옥 오늘 혁신이라는 어려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쁜가운데 시간 내 주셔서 감사드리며 용산구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혁신의 아이콘으로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지역과 사회의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기업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며 늘 조언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해주신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01

(주)더스페이스
프렌즈

김현옥

(주)더스페이스프렌즈 대표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의 한국사회 안정적인 정착을 돕다

2040년이면 국내 다문화 인구가 6%를 넘어선다.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이슈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라는 반증이다. 국내에서 다문화 인구가 밀집된 서울 용산구 해방촌도 다문화 가정이 겪는 문제에서 예외가 아니다. 더스페이스프렌즈는 이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했다. 다문화 아동·청소년, 중도입국 가정 등 이주배경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공부방 운영에서 출발해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기업으로 성장한 더스페이스프렌즈를 소개한다.



기업가가 말하는 우리 기업의 사회혁신 포인트

"다문화 인구 100만 명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많은 다문화 정책과 지원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의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학교와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첫발을 내딛는 언어 장벽 때문이죠.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최소한의 적응을 하도록 한국어 말과 글을 쓸 수 있도록 그 균형을 맞추는 것, 저는 그게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지금 시기 꼭 필요한 혁신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선생님들이 한국어 자격증이 있거나 이 분야에서 오래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현장에서 아이들과 살을 부대끼며 오랫동안 경험한 노하우가 쌓여 있는 선생님들, 자신이 직접 한국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얘기하며 동생들에게 공감 가는 조언을 해주는 다문화 청년들이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것, 저는 그것이 더스페이스프렌즈가 지금 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구해야 할 혁신이라 생각해요."



다문화 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2008년에 잠시 해방촌을 떠나 있었어요. 결혼하고 제천에서 살았던 1년 반의 시간이 그 시기였죠. 충북 제천시 덕산면은 작은 마을인데도 결혼이주여성들이 사는 다문화 가정이 30가구나 되었어요. 다문화 가정이 많다 보니 다문화가정센터도 운영되었는데, 그곳에서 일을 도와주며 자연스럽게 다문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옆에서 지켜보니 지방에 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이 너무 열악했어요. 집안일은 물론 밭일에 자녀돌봄까지 도맡아 하지만 언어 장벽으로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죠. 그나마 같은 처지의 결혼이주여성들을 만나 교류하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낙이었죠. 저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이분들에게 필요한 건 실생활에서 바로 사용가능한 한국어인데 배우는 책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고민하다 마트에 있는 식품 전단지나 은행에 있는 입출금 통장 등을 가져와서 그걸로 한국어를 가르쳐줬어요.

실생활에 필요한 언어를 가르쳐주는 건 좋은 아이디어네요. 언어 장벽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문제도 컸을 듯 한데요.

맞아요. 엄마가 한국어를 잘 못하는데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자녀들도 언어 발달에 한계가 있었어요. 지자체의 지원으로 언어치료사의 도움을 받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지속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죠. 사회생활의 기초는 가정인데, 가정에서 그런 교육과 생활습관을 배울 수 없는 아이들이 걱정이 되었어요. 다문화 가정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사회 문제가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결혼이주여성들

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 자녀들 학교 교재를 가져오게 해서 그걸로 공부를 하기도 했어요. 선생님들에게 손편지 쓰는 법도 가르쳐 주구요.

제천에서의 경험이 어떻게 다시 해방촌에서의 활동으로 이어졌나요?

2010년에 다시 해방촌으로 돌아와서 보니, 우리 지역에 있던 다문화 가정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국제난민지원단체인 피난처를 통해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예멘 등 지역의 여성 난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만 가르치는게 아니라 일상에서 그들이 부딪히는 문제도 함께 도왔어요. 김장도 같이 하고, 소통의 어려움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는 난민과 함께 병원도 같이 가고요. 특히 이분들이 한국식 수치 계산을 많이 어려워해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고 계산하는 법도 알려주었죠.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습을 돕는 지역 활동을 하다가 더스페이스프렌즈 기업을 설립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언젠가 교회 목사님이 부탁을 하셨어요. 나이지리아에서 온 남매가 있는데 한국어를 전혀 모른다고 도와달라고요. 큰 아이가 3학년, 작은 아이가 1학년이었는데, 한국어를 모르니 학교에 가도 적응을 못했어요. 초등학교 교과서를 사서 기초부터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배우는 내용이 어려워져 일주일에 세번 만나서 같



이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6년을 함께 했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소수의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좀 더 체계적인 교육과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언어의 장벽은 학교 부적응, 정서불안, 학습 결손 누적으로 인한 후속 학습 거부 등 다른 문제로까지 확대되기 때문이죠. 해방촌이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 권유가 있었고 창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2018년이네요.

더스페이스프렌즈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선생님 중 한분은 필리핀에서 온 결혼이주여성으로, 자국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어요. 전문성도 있고 다문화 가정과의 공감대를 높이는 노력을 해요. 또한 외국에서 유학하며 타 문화권에서 이방인으로 공부하며 겪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도 참여해요. 아무래도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더 깊이 이해하고 교육할 수 있고, 그 친구들도 그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더스페이스프렌즈를 설립하고 교육 콘텐츠 제작으로 역할을 확대했는데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한국어를 모국어로 접하며 살아온 아이들과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한국어를 접하는 간격의 차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이건 직접 가르쳐 보지 않으면 몰라요. 예를 들면, 한국 아이들한테야 1+1=2 라고 가르치면 되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한국어부터 일, 더하기, 는, 이를 하나하나 가르쳐야 해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게 더 어려운 이유죠. 시중에 나와 있는 한국어 교육 콘텐츠가 아닌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맞춰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국어 교육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더스페이스프렌즈가 개발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어에도 생활 한국어가 있고 학습 한국어가 있어요. 일상에서 한국말로 소통하는 건 잘 하지만 한국말로 공부를 하는건 다르다고 교육부에서 구분한 거죠. 우리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위한 학습 한국어 교육 콘텐츠에 주목했어요. 초등학교 교과서 56권의 단어 빈도수와 교육부 지정 생활 어휘를 분석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한국어 중 자주 나오는 2만 개 단어 중 200번 이상 나온 단어 600개를 뽑아서 3개월 간 교육할 수 있도록 83개의 학습 한국어 강좌를 만들었어요. 그게 온라인 교육 콘텐츠 '아띠코리안'과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 '아띠보카'예요. 아띠코리안은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위한 학습 한국어 교육 콘텐츠로, 200개 단어를 3단계로 구성해 665개 단어를 주제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아띠보카는 초등학교 어휘 중에서 빈도수 별로 조사한 어휘 중 180~200번 이상 나오는 어휘를 품사별로 나누어 구성한 단어장으로, 550개 단어를 9개 국어로 번역해 품사별 어휘 학습을 돕는 교재예요. 이 교재들을 통해 한국어 능력과 상관없이 모국어와 한국어 동시에 학습이 가능하고, 빠른 이해와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다고 봐요. 무엇보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학습이 가능한 교육 콘텐츠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교육 콘텐츠는 현재 3단계까지 완성되었고, 현재 4, 5단계 제작 중이에요.



교육 콘텐츠에 대한 반응이 궁금해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나요?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파일럿 테스트를 한 결과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3개월 간의



아띠코리안 파일럿테스트 참여자 90% 이상이 한국어 학습 능력이 높아졌어요. 한 아이의 경우 사전 평가 시에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고 영어로만 소통이 가능했는데, 파일럿테스트를 통한 콘텐츠 학습 후 쓰기 영역에도 자신감을 얻고, 소극적이던 학습 태도도 많이 좋아졌어요.

개발한 교육 콘텐츠를 통한 수익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나요?

우리가 개발한 교육 콘텐츠를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경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직접 콘텐츠를 구매하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게 개발한 교육 콘텐츠를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판매하여 그 수혜를 다문화 가정이 받는 방식으로 이윤을 내는 거예요. 또한 해외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교육 콘텐츠를 접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고요. 더스페이스프렌즈가 다문화 가정과 교육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곳들과의 허브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사단법인 다문화에듀센터 아띠도 설립했습니다.

네. 아띠 설립의 주 목적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모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전문 교사를 양성하는 거예요. 예멘, 수단 등 여러 나라에서 한국에 온 분 중에는 생각보다 고학력자도 많아요. 이분들이 모국어로 자국의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준다면 훨씬 효과적일거라 생각해요.

다문화 가정을 돕는 사회적기업들도 많은데요. 다른 기업과 더스페이스프렌즈의 차별점이라면?

우리는 1:1 멘토링 교육이 주예요.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향상될 때까지 맞춤형으로 교육하고 모니터링도 하죠. 실제 아이마다 수준이 다른데 여러 명을 한 교사가 교육하는건 학습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실제 작년에 필리핀에서 온 청소년의 경우 1년간 한국어 교육은 물론, 자기소개서 쓰기, 인터뷰 하는 법 등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했어요. 쉬운 방법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10년 넘게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언제 ‘우리가 하는 일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구나’ 느끼나요?

작년에 충북 제천에 있는 다문화 식당에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6개월간 아띠코리안의

로 온라인 클래스를 진행했어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참여해 가정 내에서도 의사소통을 자주 할 수 있도록 도왔죠. 처음에는 말도 제대로 못하던 아이가 수업이 끝날쯤에는 인사도 잘하고 자신감이 커진 모습을 보며 작지만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향후 방향은?

더스페이스프렌즈는 작년 한해에만 3,000명에게 한국어 교육을 진행했고, 올해는 1만 명까지 계획하고 있어요. 또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아띠보카 책자는 올해 출판 등락을 준비하고 있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공부하는 교재로 전국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 더 많은 곳에 보급할 계획이에요. 이러한 더스페이스프렌즈의 활동을 통해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해 지역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Information

	기업명	(주)더스페이스프렌즈
	대표자	김현옥
	설립년도	2018년
	소셜미션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참여하여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사회 만들기
	주요사업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 교육, 다문화 온라인 콘텐츠 제작
	구성원	10명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20길 10
	홈페이지	www.thespacefriends.com
	연락처	02-310-9999
	대표메일	thespacefriends.kor@gmail.com

02

(주)옴니아트

이성동
(주)옴니아트 대표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제품으로 소셜 패션 브랜드의 새 장을 열다

(주)옴니아트는 버려지는 그림으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패션제품을 만드는 브랜드 '얼킨(Ul:kin)'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얼킨 브랜드를 통해 신진 작가들이 작품의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옷 등 패션제품을 만들 때 버려지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패션 브랜드의 의류와 작가의 시각 IP를 접목해 티셔츠, 후드티 등을 만드는 새로운 플랫폼 '얼킨캔버스'를 론칭했다. 사람과 동물, 환경을 모두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활동을 통해 더 나은 소셜벤처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옴니아트를 소개한다.



(주)옴니아트의 시작이 궁금합니다.

한양대학교에서 의류학을 전공하며 자연스럽게 패션 분야에서 일을 했어요. 1년 정도 회사를 다니다가 개인사업자로 시작한 일이 2017년 옴니아트라는 법인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주)옴니아트의 주요사업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버려지는 그림과 가죽을 이용해 가방, 지갑 등 패션제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브랜드 '얼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과 대중의 재능순환을 위한 작가 협업과 신진작가 지원, 전시 기획 프로젝트도 함께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새로운 플랫폼 '얼킨캔버스'를 론칭하고 운영합니다.

기업가가 말하는 우리 기업의 사회혁신 포인트

"다른 기술 기업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지만 패션 분야에서는 데이터, 기술 기반의 기업이 거의 없어요. (주)옴니아트는 자체 개발팀을 두고 당장 구현 가능한 기술부터 차근차근 개발해 적용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기업과 차별성을 가집니다. 프린트 시스템과 e-폴필먼트 시스템 기반의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한 점도 얼킨캔버스만의 차별화된 핵심 역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업사이클링 브랜드인 '얼킨'을 론칭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처음부터 업사이클링에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니에요. 지인의 졸업작품전에서 버려지는 전시 작품들을 보면서 버려지는 작품도 그 가치를 간직할 수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때 떠오르게 그림으로 만든 하나밖에 없는 가방이에요. 만들면 예쁘겠다는 직관적인 생각이 지금의 얼킨을 만든 셈이죠.

얼킨 브랜드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얼킨' 이름은 얹히고 설키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예술과 소비자가 뒤섞일 만큼 친근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브랜드명이에요. 재능순환을 모토로 하죠. 얼킨은 작가들이 자기 작품의 가치를 제대로 보장받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패션제품을 만들 때 버려지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가치 있는 패션 브랜드를 지향합니다. 이에 작가들이 습작을 가져오면 같은 크기의 새 캔버스도 교환해주고 수익의 일부를 로열티로 제공합니다.

얼킨 브랜드는 친환경적으로 제품을 생산합니다. 브랜드 초기에는 캔버스 천 위에 그려진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해 포인트 아이템으로 들 수 있는 패션 소품을 제작했고, 나중에는 가죽을 더한 아이템을 시도했어요. 환경적 요소를 고려해 가죽 사용량은 최소화하거나 빈티지 가죽 및 재생 가죽 등을 활용했죠.



버려지는 습작품을 패션 소재로 사용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국내에서는 첫 시도라 새로운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국내에서는 첫 시도였고, 해외에도 거의 사례를 찾기가 어려운 일이었죠. 국내 미술시장의 작품 거래 대부분이 중견작가와 거래하는 소수의 갤러리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신진 작가들이 작품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죠. 게다가 판매되지 않은 신진 작가의 작품이 버려지면서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니 신진 작가도 돕고 환경도 고려한다는 점에서 작가들의 습작품은 좋은 패션 소재가 될거라 본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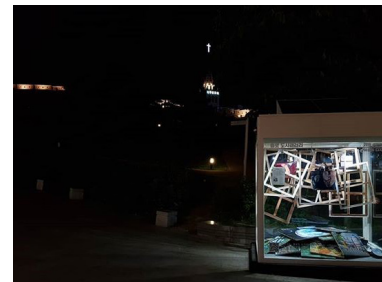
생소한 소재다 보니 신기해 하는 분들이 많은 만큼 걱정도 많았어요. 처음 시도하는 일이라 브랜드 초기에는 어려움도 컸죠. 처음 회화 작품을 코팅하고 프린트하는 기술 개발에만 6개월 넘게 걸렸어요. 완성도도 많이 떨어졌고요. 소재가 낯설다 보니 같이 작업하는 업체들도 생소해 했죠. 그래도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받으며 계속 수정해 나갔고 다행히 자체 기술을 개발하면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제품 생산 단계에서부터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다 보니 어려움이 컸을 듯 합니다.

제품 생산 전 과정에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다 보니 제한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한된 부분에서 창의성도 발휘되기에 어렵다기보다는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근에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이 중요해지면서 패션산업에서도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관련 소재도 다양해져 어려모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패션 플랫폼 '얼킨캔버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얼킨 캔버스의 탄생 배경과 플랫폼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를 통해 임팩트스퀘어의 컨설팅을 받으면서 평소 가지고 있던 고민들 - 시각 라이선스와 소비자 간극을 줄이고 패션을 매개체로 시각 지적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 대중화 등 - 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2021년 2월에 론칭한 것이 '얼킨캔버스'였어요. 얼킨캔버스는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패션 브랜드의 의류와 작가의 시각 IP(예술작품, 캐릭터, 연예인, 기업로고 등)를 접목해 티셔츠, 후드티 등을 만드는 새로운 플랫폼이에요. 다양한 브랜드의 IP를 바탕으로 또 다른 상품에 입혀 만들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이죠. 서비스 개시 후 6개월 만에 가입 회원 수가 1만4000명으로 늘었고, 2021년 기준 월 5만 명 이상이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얼킨캔버스 플랫폼을 통해 투자 유치에도 성공했는데요.

최근 하이트진로가 예술가 등 라이선서(licensor)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고 제품뿐만 아니라 라이선스도 함께 판매하는 등 기존에 없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점을 높이 평가해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하이트진로뿐만 아니라 카이스트 청년지주, MBA캐피탈 등이 투자를 결정해 18억 원의 투자를 확보했습니다.

올해 사업에서 가장 주력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얼킨캔버스 버전2를 준비 중이에요. 6월부터 창작자들이 직접 콘텐츠를 올릴 수 있도록 플랫폼 개선작업을 하고 있어요. 또한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구조로 플랫폼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는 어떻게 소통하고 싶나요?

용산구는 패션문화 분야에서는 굉장히 핫한 지역이죠. 강남구만큼 트렌디한 것들이 많아요. 용산구의 창의적인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서로 윈윈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사회적경제 기업들과도 적극적인 교류를 했으면 하는데 용산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센터나 자치구 등에 정책 제언을 한다면요?

기업을 평가할 때 사회적 임팩트를 좀 더 입체적으로 보셨으면 합니다. 정량적 성과, 정성적 성과 어디 하나에만 치중하기 보다는 균형 있게 봐주면 좋겠어요.



앞으로 (주)움니아트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업사이클링 브랜드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규모를 키워서 소셜임팩트를 더 확산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작가에게 정당한 수익 배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은 소셜벤처로 성장해서 후배 소셜벤처에게 좋은 방향도 제시하고 싶어요.

Information

	기 업 명	(주)움니아트
	대 표 자	이성동
	설립년도	2017년
	소셜미션	취약신진 회화작가의 창작 활동 소득 증대 및 폐기물 배출 감소
	주요사업	소셜 패션 브랜드 얼킨 및 얼킨캔버스 플랫폼 운영
	구 성 원	20명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46 12층
	홈페이지	https://ulkin.co.kr
	연 락 처	070-4681-2017~8
	대표메일	info@ulkin.co.kr

03

톡투미다밥
사회적협동조합

이레샤 페라라

톡투미다밥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주여성 자립의 꿈 스스로 만들어 가다

2010년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 러시아, 필리핀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주여성들이 의기투합해 이주여성 자조단체 톡투미를 만들었다. 한국에서 살지만 여러 편견으로 설 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주여성들의 일자리 창출과 다문화 소통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다. 톡투미는 2016년 톡투미다밥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면서 또 한번 진화를 겪었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주여성들의 든든한 지지기반이 되기 위해 희망을 놓치 않는 톡투미다밥사회적협동조합을 소개한다.



기업가가 말하는 우리 기업의 사회혁신 포인트

"다문화라는 이름 속에는 이주민과 선주민을 이분법으로 나누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어요. 이주민들도 모두 똑같은 국민이라는 걸 알리고 싶었어요. 그 시작이 저는 서로 간의 '소통'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봤어요. 톡투미는 한국 사회가 이주여성을 여러 방식과 잣대로 평가하려 할 때, 평가 보다는 같은 이주여성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원하는 일에 보탬이 되고자 했어요. 이에 이주민들이 단순히 도와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나서서 자립하고 똑같은 권리를 가진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 이주여성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는 것, 그게 다문화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자 다문화 사회로 가는 혁신의 방법이라 생각해요."



톡투미라는 이주여성 자조단체를 만들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스리랑카에서 의류 디자이너로 일하며 업무차 한국에 왔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면서 이곳에 정착했어요. 타국에서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면서 제 설 자리를 찾기가 어려웠죠. 우연히 방송에 출연하고 여러 곳에서 다문화 강사로 활동하게 되면서 한국 사회의 다문화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주여성, 이주민 2세대 등 다문화를 바라보는 다른 시선을 우리 스스로 해결해보자는 마음을 먹고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과 2010년 이주여성 자조단체 '톡투미(Talk to me)'를 만들었어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주여성들이 힘을 모아 자신이 가진 문화적 재능과 능력을 발굴해 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꿔보자는 목적으로요. 톡투미는 '나에게 말을 걸어주세요'라는 의미예요.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다문화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이름이에요.

톡투미의 주요사업을 소개해주세요.

크게 보면 요리사업 중심의 톡투미다밥사회적협동조합 운영과 '모니카랑 놀자'와 같은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나뉘집니다.

톡투미다밥사회적협동조합은 2016년 만들어졌어요. 톡투미 초기,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말하는 도시락' 요리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나라의 요리를 한 접시에서 맛볼 수 있는 케이터링과 도시락,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에 얹힌 이야기를 듣고 직접 만들어보는 요리교실 등을 운영하면서 요리사업의 가능성을 엿봤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2016년 다양한 나라의 음식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톡투미다밥의 문을 연거죠. 다밥은 '다 같이 밥 먹자'의 줄임 말이에요. 지금은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다양한 음식으로 소통하기 위해 아시아 요리 스튜디오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리사업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톡투미를 시작할 때 우리가 잘할 수 있는걸 해보자는게 모두의 의견이었어요. 우리가 언



제 가장 행복한지 생각해보니 가족에게 모국의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걸 맛있게 먹는 모습을 봤을 때더라고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잖아요. 세계 어디서든 음식을 나눠 먹는 일은 즐거움을 주고,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건네줘요. 맛있는 음식을 통해 이주민과 선주민이 어우러지길 바라는 마음도 담아 요리사업을 시작했어요.

진행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인가요?

모니카랑 놀자와 이모나라 나눔여행이 대표적이에요.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 교육 공식 프로젝트(ESD)로도 선정된 모니카랑 놀자는 이주여성들이 직접 만든 다른 생김새의 모니카 인형 만들기 키트를 통해 자연스럽게 다양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모니카 인형은 '먼 곳에서 온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피부색이 다양한 다문화 아이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형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려주기 위해 시작된 프로그램이죠. 필요한 재료는 우리가 전부 제공하고, 톡투미의 다문화 강사의 지도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어요. 완성된 인형은 국내외 곳곳에 기부하고, 일부 수익금은 이주여성의 자립을 지원하거나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쓰고 있어요.

이모나라 나눔여행은 이주여성들의 모국에 도움이 필요한 지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누구보다 그 마을과 사람들을 잘 알고 있는 이주여성이 직접 가이드를 해주어 현지 주민 및 아동들과 깊은 마음을 나눌 수 있어요. 코로나19로 몇 년간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가능한 스리랑카로 나눔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몇 년 사이 코로나19로 사업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영향을 많이 받았죠. 다들 그렇겠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도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 요리사업의 경우 밀키트 사업에 집중하고 있고, 케이터링의 경우 박스 케이터링으로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다문화 인식 개선 수업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톡투미가 설립된지 12년째네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주여성이자 사회적기업가로 활동하며 느낀 소회를 얘기한다면요?

함께했던 이주민 친구들이 자신감을 얻고 자립하는 모습을 볼 때면 고맙고 뿌듯해요. 하지만 아쉬울 때도 많아요. 이주민이기 이전에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런데도 일상에서 체감하는 현실은 좀 달라요. 다문화 정책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진짜 변했나'라는 의심심이 들 때가 있어요. 똑같이 세금을 내고도 시어머니에게 구박받는 며느리가 된 느낌이라랄까요.



용산지역에서 오래 활동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용산구는 서울에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최근에는 다문화 센터도 많이 생겼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제가 동네에서 동장을 맡고 있는데, 동장이라는 타이틀만 있고 그 이름에 걸맞는 역할은 주지 않아요.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준다면 더 관심이 커질 듯한데 이런 부분도 아쉬워요. 물론 우리도 요구만 하지 말고 먼저 제안하고 나서야죠. 그래야 같은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기업의 요즘 고민이라면?

요즘 특투미다밥이 많이 어려워요. 그래도 버텨야 하는 건 여기가 이주여성들이 자기 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이기 때문이죠. 위기 단계에서 무너지면 지난 10년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기도 하고요.



이주여성들 스스로가 만들고 운영해온 특투미다밥이 계속 유지하려면 주변의 도움이 절실해요.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기업 인큐베이팅이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앞으로 계획이 궁금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웠지만 이제 조금씩 일상이 회복되고 있어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말 요리 교실이나 특별한 이벤트 등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멈춰 있던 해외 사업도 재개하려 준비 중입니다.

Information

	기업명	특투미다밥사회적협동조합
	대표자	이레샤 페라라
	설립년도	2016년
	소셜미션	이주민이 편견없이 선주민들과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세상 만들기
	주요사업	여러 국가의 특징을 살리는 요리사업 및 공예품 개발,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등
	구성원	5명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 47길 4층
	홈페이지	talktome.or.kr
	연락처	070-7784-7579
	대표메일	talktome1010@gmail.com

04

주식회사 29일

홍도겸
주식회사 29일 대표

거품없는 가격과 안전한 품질의 반값 생리대로 여성문제 해결한다

건강한 생리문화를 위해, 여성의 고통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탄생한 기업, 주식회사 29일은 설립 당시부터 화제를 모았다. 남성공동대표가 반값 생리대를 만드는 기업을 창업했다는 이유에서다. 주식회사 29일은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문화를 선도하는 활동에도 열심이다. 소비자와 함께 생리대 현물기부를 시작으로 매년 사회공헌사업을 진행 중이다. 거품 없는 가격과 안전한 품질로 여성 위생용품 전문 브랜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주식회사 29일을 소개한다.



남자가 여성문제 해결을 위해 반값 생리대를 만드는 회사를 창립했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시작이기에 주식회사 29일을 설립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주식회사 29일은 2015년 설립 초기부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기업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 프로그램에서 출발해 다양한 사회문제 중 여성 위생문제, 특히 여성 위생용품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특히 사회·건강·문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해결 방법을 제시했고, 첫 번째 프로젝트로 비싼 여성 위생용품의 가격 문제 해결을 위해 반값 생리대 '29Days'를 출시했습니다. 최근에는 환경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제품 개선 및 배송 시스템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가가 말하는 우리 기업의 사회혁신 포인트

"주식회사 29일의 사회혁신 포인트는 이전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취약계층, 일반 소비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혜택을 돌려드리는 게 아닐까 합니다. 기업들이나 사회적기업 등의 경우 취약계층만을 주요 수혜자로 생각하거나, 연말 연초에 일회성으로 현금 혹은 현물기부만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수혜대상자를 취약계층으로만 한정 짓지 않고 모든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항상 인식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당연히 제품 판매 만큼의 적립식 기부 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서울시 여자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상비생리대 비치 프로젝트 등을 통해 모두가 평등하고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현재 3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프로젝트들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의 진심이 여성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남성으로서 경험해보지 않은 생리대를 만들고 판매한다는 것이 창업 초기에는 어려웠을 듯 합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실사용자 및 실수요자에게 발생하는 진짜 문제 해결입니다. 29일은 소비자 우선주의를 경영철학으로 삼고 소비자의 건강권, 합리적인 금액으로의 구매, 사회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물론 창업 초기에는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고 간접 경험밖에 할 수 없었기에 쉽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1년여 기간 동안 정말 다양한 여성들의 온·오프라인 인터뷰와 설문조사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품 및 서비스를 준비하기 전부터, 제품 선택, 인케이스 선택, 서비스 방법 등 하나하나 작은 부분까지 소비자와 여성들의 인터뷰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300여 명이 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십 차례의 설문조사와 인터뷰, 오프라인에서의 소비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제품 출시 기간에는 여성들을 믿고 창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비싼 생리대 단가를 낮추기 위해 직접 만든 생리대를 국내업체를 통해 생산한 것으로 압니다. 기존에 없는 국내 1호 반값 생리대 ‘29Days’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어떤 것이었으며,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셨나요?

국내업체에서 생산하는 건 가격적인 측면보다는 소비자들을 위해 안전한 제품을 생산



하고자 하는 주식회사 29일의 의지였습니다. 해외에서 생산하는 경우 더 싸게 제작할 수 있지만, 제약회사에서 근무했던 저의 경험상, 그리고 의약외품이며 소비자의 건강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위생용품을 제작·판매하는 저희의 입장에서는 기술력과 안전함, 빠른 피드백이 가능한 국내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생각과 고집으로 이어졌습니다. 단가를 낮추기 위해 내부에서 치열한 고민을 했습니다. 대기업들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유통마진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고 광고비 등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며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거의 대부분 판매하며, 소비자도 29Days의 의지를 알아주셔서 다른 업체와는 유통 수수료가 비싼 입점몰 보다는 수수료가 저렴한 자사 쇼핑몰과 자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에서 구매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취약계층의 여성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위생용품을 지원하거나, 판매실적과 비례해 기부생리대를 적립하는 캠페인 등 사회공헌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특히 남는 사회공헌활동과 피드백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판매실적과 비례해 기부생리대를 적립하는 캠페인과 캠퍼스 내 상비생리대 비치사업, 공공시설에 생리대를 비치하는 사업 등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업에 연락을 해 친구, 지인과 십시일반 비용을 모아, 따로 지자체나 여성쉼터 등에 전달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서 꼭 29Days의 제품으로 전달하고 싶다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활동이 널리 퍼져 선한 임팩트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늘 감사하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한 팩이라도 더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드백을 보면서 앞으로 더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 주력하는 사업이나 활동은 무엇인가요?

올해는 신제품 '29Days 드림핏 팬티형 입는 오버나이트' 생리대가 출시됩니다. 많은 소비자분께서 구매하고 입는 생리대의 형태인 만큼 초경 시기의 어린 친구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1년 전부터 꼭 출시하고 싶었던 제품인데, 올해 드디어 저희가 출시할 수 있게 되어 기대가 큼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친환경기업 등의 여성용품 및 위생용품 등을 소개할 수 있는 29picks 플랫폼도 운영 중입니다. 3~4만명 가량의 소비자들에게 우리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기업들의 의미있는 제품을 소개하면 더 큰 임팩트를 만들 수 있을거라 생각해 기획된 플랫폼인 만큼 올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용산구에 있는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어떻게 네트워크하고 역할을 하고 싶나요?



아직은 크지 않은 사회적기업이라 다양한 선배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노하우를 배웠으면 합니다. 이제 사회적기업을 시작하는 청년이나 예비 창업가들도 많이 만나고 우리의 실수도 전하고 노하우를 모두 공유하는 자리가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6~7년 차 되는 작은 기업이지만, 항상 소통하고 특히 여성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싶습니다.

자치구나 센터에 하고 싶은 정책제언이 있다면?

용산구는 서울시에서도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모여있는 특별한 자치구입니다. 사회적·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이며, 한가지 사회문제라 하더라도 다양한 피드백을 들을 수 있는 지역이기에 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고 싶나요?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힘들었지만, 이제 팬더믹이 종료되어 가는 올해 이후부터는 기업을 재정비해 더욱 다양한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어나가고 싶습니다. 소비자들이 29Days 브랜드를 보고 "아 저 브랜드는 믿을 수 있지", "정직하고 항상 좋은 일 하는 브랜드지"라고 기억하고 기억에 남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Information

	기 업 명	주식회사 29일
	대 표 자	홍도겸
	설립년도	2017년
	소셜미션	여성의 건강 및 위생 증진
	주요사업	반값생리대 등 여성위생용품 제조·판매
	구 성 원	5명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46 한남아이파크 B106
	홈페이지	www.29days.co.kr
	연 락 처	070-4388-2078
	대표메일	INFO@29Days.co.kr

05

(주)율리아

조현민

(주)율리아 대표

용산구 대표 업사이클링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다

후암동 골목 어귀에 있는 가족수공예 공방을 운영하며 환경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주)율리아는 용산구 업사이클링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주)율리아 조현민 대표는 기업 창업에 앞서 이미 캄보디아에서 가족수공예품 제조·판매로 캄보디아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두아이두(DO I DO)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코로나19로 국내로 돌아오면서 2020년 6월 용산구 후암동에 (주)율리아의 문을 열었다. 국내 외국인들을 주 고객층으로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고 싶다고 얘기하는 (주)율리아를 소개한다.



기업가가 말하는 우리 기업의 사회혁신 포인트

"우리 기업은 혁신이 없는게 혁신이에요. 캄보디아에서 기업을 운영할 때 기술 기반의 혁신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 많이 진출하는 걸 봤어요. 하지만 그 혁신모델이 실제 지역에서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며 안타까웠어요. 지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없이 접근하다 보니 현지에 적용이 어려운 기술이었던 거죠. (주)율리아는 여기서 교훈을 찾고자 해요. 우리가 후암동에 기반을 두었지만 여길 변화시킨다는 생각은 오만인 것 같아요. 그저 이곳을 찾는 외국인, 어르신들에게 소박하게라도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누구나 편하게 와서 소통할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하며 자연스럽게 지역 안에 스며들면 좋겠어요."



사회적기업에는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대학과 대학원에서 행정학과 정책학을 전공하고,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일을 했어요. 공공영역에서 일하다 보니 공익성이 높은 사회적기업에도 자연히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2013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사회적기업 리더과정(1기) 수료 후, 2014년 사회적기업육성사업의 컨설팅 인턴으로 캄보디아를 처음 방문했어요. 머리로만 알던 것을 개도국에서 직접 문화로 접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론과 현실의 차이점을 알게 됐고, 사회적기업을 운영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2014년 코이카코트라가 지원하는 글로벌 영 비즈니스맨(GYB)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 프놈펜에 정착하고, 이듬해 '두아이두(DO I DO)'라는 기업을 창업했어요. 수공예 가족공방을 운영하는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이었죠. '두아이두' 이름에는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보겠다는 의지를 담았어요.

디자인 전공도 아닌데 국내도 아닌 해외에서 가족수공예라는 낯선 분야로 창업을 한다는게 놀랍습니다. 왜 가족수공예를 선택한건가요?

캄보디아에 막상 가보니 이미 목공, 배틀천, 석공을 하는 곳은 많았어요. 하지만 노동 강도가 센 것에 비해 실제 일하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미비했죠. 가족수공예품은 기계를 쓰지 않아도 되고 육체적으로 덜 힘들지만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어 적합한 아이템이라는 생

각이 들었어요. 당시 한국에는 이미 가죽수공예 붐이 일고 있었지만, 캄보디아에는 그런 수공예품 가게가 거의 없었어요. 블루오션이라 생각했죠. 잘 모르는 분야라 한국에 들어와 책도 읽고 수업도 들으며 공부를 했어요. 혼자 가족으로 여러 소품을 만들며 디자인 감각도 키우고요.

두아이두가 했던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캄보디아에서 강제 이주를 당한 여성들이 모인 마을에서 직조틀은 중요한 생계수단이었어요. 두아이두는 직조틀을 이용해 고아원, 학교 등과 연계해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업사이클 워크숍도 열고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어요. 그렇게 고용된 현지인들이 수공예 가죽공방 봉제공장에서 버려지는 자투리 천을 직조틀 도구에 넣어 만든 소품을 만들어 판매도 했고요. 프놈펜에 작업장과 쇼룸이 있었어요. 주 고객층은 캄보디아를 여행하는 외국인과 거주민인데, 그중에서도 프랑스인이 70%였죠.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는 왜 돌아오게 되었나요?

코로나19가 심해져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두아이두는 성매매여성을 지원하는 미국 NGO인 '애버래스팅러브'에 이양했어요. 우리가 몇 년간 했던 활동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요. 2020년 2월에 한국으로 돌아와 4개월 후인 6월에 (주)울리아를 창업했어요. 처음에 한국으로 왔을 때는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갈 것도 고려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서 한국에 정착해 다시 사업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한국에 들어온 그 해에 바로 창업을 한거네요. (주)울리아는 어떤 기업인가요?

(주)울리아는 한마디로 업사이클링 기업이에요. 캄보디아 대다수 국민들이 업사이클링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았기에 두아이두는 가죽수공예 직업훈련이나 상품 판매가 주 사업이었다면, (주)울리아는 좀 더 업사이클링에 초점을 둔 기업이라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제품 브랜드는 '오프레스(offless)'예요.

기업명을 (주)울리아라고 지은 이유가 있나요?

(주)울리아는 제 영어 이름이에요. 유럽에 가니 100년 된 가게들이 패밀리 성을 내걸고 오랜 기간 명맥을 이어오는 모습을 보며, 우리 기업도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내 이름을 걸고 책임감 있게 임해보자는 마음에서 지어진 이름이에요.

(주)울리아는 그동안 어떤 사업을 했나요?

작년 한 해는 가죽워크샵이나 시니어교육, 원데이클래스 등 가죽수공예를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했어요.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응원하는 퍼포먼스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어요. 동대문에서 폐기된 가방으로 '디디'라는 인형을 만들어 벌이는 퍼포먼스였는데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해주셔서 진행할 수 있었던 뜻깊은 캠페인이었어요.

올해는 어떤 사업에 주력하고자 하나요?

작년에는 두아이두의 연장선으로 가죽제품을 팔고 가죽워크샵을 운영했지만 6월부터는 새롭게 변화해 가죽워크샵을 정리하고 환경캠페인과 페플라스틱 사출프로그램, 실크스킨 워크샵에 집중하려고 해요. 페플라스틱 사출사업을 통해 환경과 관련한 체험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하고, 페플라스틱을 소재로 도장, 십자가, 미니 화분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할 계획이에요.

(주)울리아의 주 고객층은 누구인가요?

체험교육은 우선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이나 후암동을 찾는 커플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직업훈련은 시니어, 경력단절여성, 미혼모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에요. 이분들이 우리에게 교육을 받고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으면 해요.

특히 후암동에 자리 잡은 이유가 있나요?

작년 4월에 후암동에 공방 문을 열었어요. 우리의 주 고객층은 시니어나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는 생각에서 이곳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아직은 창업 초기인데요.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요?

초기다 보니 시제품을 개발하거나 개발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 지원이 필요해요.

용산구에 이미 가죽수공예 등 공방이 많은데요. 그런 곳들과 이곳만의 차별성은 무엇인가요?

외국인과의 연계를 꿈고 싶어요.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머물지만 그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환경체험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요. 무엇보다 우리 구성원들이 모두 해외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고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합하다고 봐요. 사업이 어느정도 안정화되면 외국인 파티에 우리 프로그램을 접목하거나,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용산구의 상징인 남산을 포인트로 한 기념품을 제작해보고 싶어요. 또 다른 차별 포인트라면 제품을 만드는 체험에 초점을 맞춘 다른 공방 프로그램과 달리, (주)율리아는 환경교육에 더 집중한다는 점이에요.

용산구에 있는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어떻게 네트워크하고 역할을 하고 싶나요?

우리 같이 신생 기업에게 지역과의 협력은 더 중요해요. 지금까지 후암동 골목에 있는 공방들과는 교류를 했지만, 아직 용산구 전체를 둘러보고 관련 사회적경제기업과의 교류는 못하고 있어요. 용산구가 아직 환경교육은 활발하지 않기에 더 많은 기업들과 협력해서 새로운 사업 모델도 만들고 시너지를 내고 싶어요.



자치구나 센터에 하고 싶은 정책제언이 있다면?

용산이 가진 가치는 높고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요. 용산구만이 가진 특별함이 잘 드러날 수 있는 대표 브랜드가 생겨났으면 해요.

(주)율리아의 앞으로 계획이 궁금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올해 환경교육과 워크숍 등이 안정화되면 내년에는 소외계층을 위한 아트워크를 추진할 계획이에요. 사회적기업이라도 지속하려면 제품력이 중요하다고 봐요. 디자인과 연계해 제품력을 높일 수 있는 고민을 더 해나갈 생각이에요.

장기적으로는 국내 업사이클링 분야에서 한 획을 긋고 싶어요.

Information



기 업 명 (주)율리아



대 표 자 조현민



설립년도 2020년



소셜미션 업사이클링 확산을 통한 환경 인식 개선



주요사업 수공예



구 성 원 4명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35길 49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yulria2021>



연 락 처 0507-1414-2523



대표메일 ohroko@naver.com

용산구 대기업 사회공헌활동 현황

지속가능경영의 필수 요소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커지면서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지칭하는 ESG 경영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기업들과 지역의 대기업들 간의 협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협)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의 도움 을 받아 용산구 내 대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을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해 소 개한다.

I 조사대상과 선정기준

조사분석에 앞서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용산구 소재 공기업 및 대기업 14곳(공기업 5곳, 대기업 9곳)을 선정했다. 선정한 14곳은 용산구 내 공기업이거나 용산구 산업통계에서 연 매출 3천억 원 이상에 임직원 1,000명 이상인 민간 기업이다. 선정 기업은 코레일네 트웬스(공기업), 코레일유통, 코레일로지스, 코레일관광개발(롯데합작사), 한국철도공 사(대전, 모회사), 아모레퍼시픽, CJ CGV, 오리온재단, 크라운제과, LG유플러스, 제일기 획, HDC현대산업개발, LS, 삼일회계법인이다.

I 14개 기업 주요 사회공헌활동 현황

기업명	주요 사회공헌활동	사회공헌부서	주소/연락처	주요사업
한국 철도공사	● 철도화물 운송서비스 관련 자회사들 거느리는 모회사 ● 매년 사회공헌활동(연탄, 일손, 배식 등 봉사 및 기부) 4000회 ● 기부금: 홍익회(전액 유족연금으로 지급) ● 잔액으로 사업 진행(열차역 노숙인 지원기관에 기부) ●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미래전략실	대전 동구 중앙로 240/ 042-615-3735	여객 및 화물 운송 철도 장비 제조, 정비 역사 개발
코레일 유통	● 코레일 관리 역사 매장 직영 및 수수료 방식 전문점 관리 ● 매년 사회공헌활동비로 지출 ● 2020년에 용산구 청파동주민센터, 청파동노인복지센터, 영등포 복지관 등에 지출 ● 2020년 중증장애인제품 구매	총무지원처	영등포구 국회대로612/ 070-7092-7154	철도역 구내 매장, 자판기 운영, 철도광고영업, 자원유통사업, 상생물류 지원사업, 임대사업 등

기업명	주요 사회공헌활동	사회공헌부서	주소/연락처	주요사업
코레일 네트워크	● 철도예매, 주차장, 특송 사업운영 코레일 자회사 ● 사회공헌(봉사 및 기부), 안전경영, 녹색제품 구매, 탄소 저감 의무 이행 위해 직원 봉사활동과 매년 기부금 지출(아동, 노인, 다문화가정 등)	기획조정처	한강대로 69 업무동 13, 14층 /02-3271-0726	철도승차권 예약 발매 철도 관련 주차장 운영(136개) KTX특송 등 사업 운영
코레일 로지스	● 철도화물 운송서비스 코레일 자회사 ● 사회공헌활동(봉사 및 기부), 안전경영, 녹색제품 구매, 탄소 저감 의무 이행을 위해 직원 봉사활동 ●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인사	청파로 432/ 02-390-5965	코레일 화물 상하차 철도 블록 일관 운송 (door to door)
코레일 관광개발	● 철도화물 운송서비스 코레일 자회사 (롯데관광개발 지분 49%) ● 사회공헌활동(연탄, 일손, 배식 등 봉사 및 기부) ● 안전경영, 녹색제품 구매, 탄소 저감 의무 이행을 위해 직원 봉사활동과 매년 기부금 지출 ●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인사	청파로 378/ 02-2084-5720	지분: 롯데관광개발(39%), 코레일(51%) 여행업, 여행 알선, 테마파크사업, 국회의의 기획업, 열차내 상품 판매 등
아모레 퍼시픽	● 화장품, 차, 생활용품, 의약품 제조판매 회사 ● 여성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 참여기관 모집, 유기동물 보호, 건강, 유방암 환자의 자선감 회복 등 프로그램 진행으로 매년 기부금 지출	지속 가능혁신팀	한강대로 100 /02-6040-5114	화장품, 생활용품, 다류, 건기식, 의약품 제조판매 15개 자회사 보유
(주)오리온	● 오리온그룹 소속으로 과자 제조, 영화관 사업, 제주도 지역 사회공헌기금 지원, 군인 조식 지원 등 사업 수행	오리온재단	백범로 90다길13/ 02-710-6000	익산 청주 공장, 중국, 러시아, 베트남 생산 수출
CJ CGV	● 영화관 운영 사업,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조직 공모 지원, 영화관 내 장애인 및 다문화여성 운영 카페 입점	CSV파트	한강대로23길 55, 아이파크몰 6층/ 02-371-6522	전 세계 7개국에서 589개 사이트, 4,220개 스크린 (국내 187개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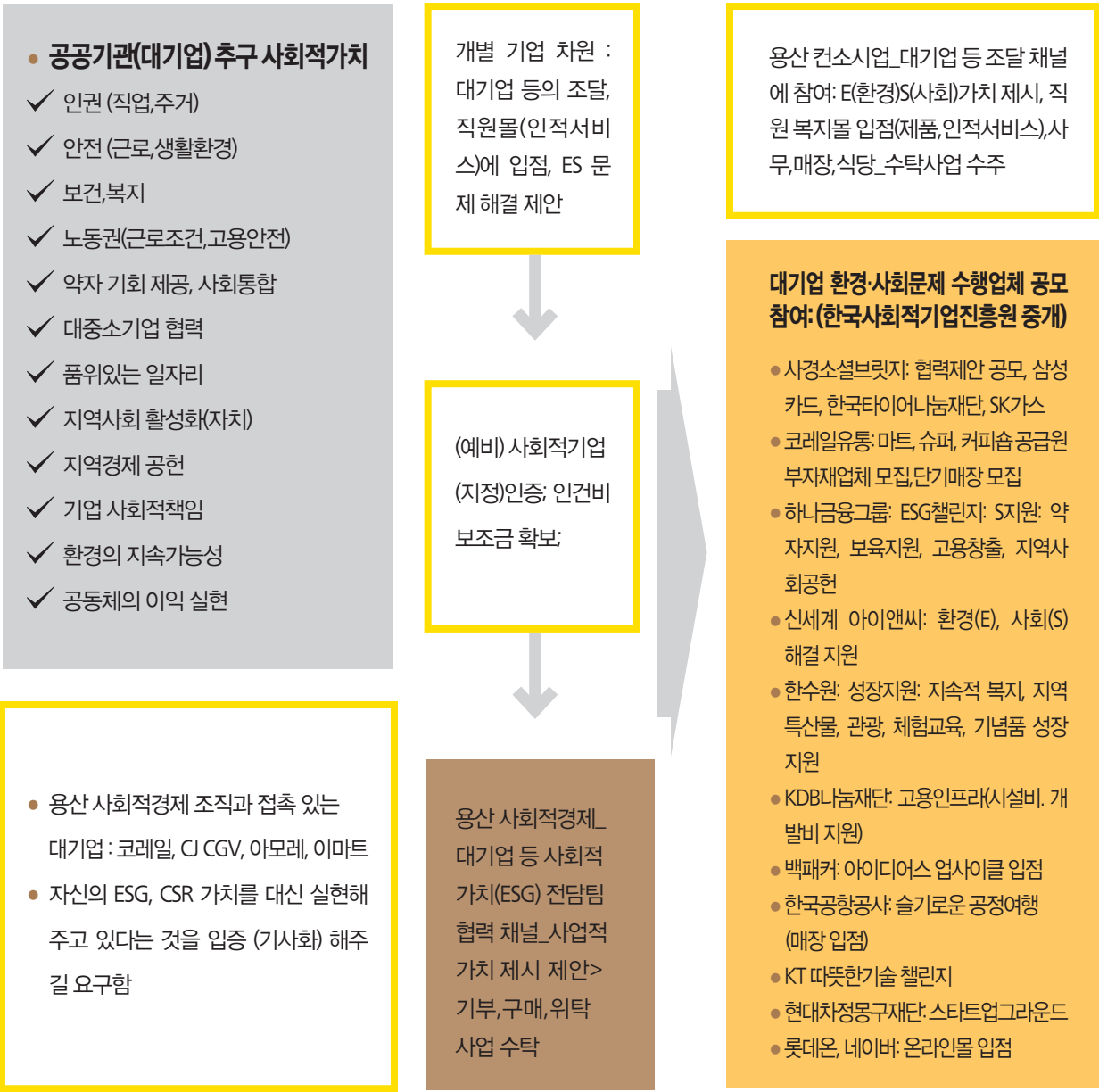
사회공헌활동 기업

총 14개

기업명	주요 사회공헌활동	사회공헌부서	주소/연락처	주요사업
(주)코리온제과	● 국악, 조각 등 예술 경영(메세나) 지원	사회공헌팀	한강대로72 길 302-791-9123, 9133	모회사: 크라운해태홀딩스 아래 10개 자회사 2005년 해태제과 인수
엘지 유플러스	● 이동통신 회사로 아동, 청소년, 숲가꾸기, 유기동물 보호사업 수행	사회공헌팀	한강대로 32 (한강로37가) 02-3773-1114	무선통신, 케이블 방송 관련 자회사 10개 운영
제일기획	● 광고마케팅 회사로 탈북청소년, 어린이 지원사업 수행	사회공헌단 (CSV 파트)	이태원로222/ 02-3780-2114	소비자 행동 측정 실시간 데이터 수집, 분석, 전략, 광고
HDC 현대 산업개발	● 아이파크 브랜드 주택건설 공사업체로 주거빈곤, 대학생 장학금, 어린이도서관, 무료급식 봉사	사회공헌팀	한강대로23길 5502-2008-9114	주택·아이파크 브랜드, 업무, 상업 건축, 토목 분야 9개 자회사 포니정재단: 장학사업
LS	● 전선, LPG 도시가스, 태양광 전력생산업체로 장애인복지, 아동 과학실험, 문화예술 체험, 차량 지원	사회공헌팀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02-2189-9988	동 전력 기기 전선 LPG, 태양광, 무역 등 103개 회사 자회사 보유 지주회사
삼일 회계법인	● 기업 회계감사, 컨설팅업체로 기부금 사용, 회계 자문	삼일회계법인 사회공헌팀/ 삼일미래재단	한강대로100/ 02-3781-3131	삼일미래재단(2008 설립) 청소년 교육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I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기업 사회공헌활동 제안 가능사업

이번 용산지역 대기업 사회공헌활동 조사와 용산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 청취 결과, 최근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직접사업, 위탁사업) 의무화와 대기업의 ESG 경영 확산으로 용산 사회적경제 조직이 구체적인 사업을 바탕으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가치(계량화)를 제시·입증한다면 기부 또는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다만 개별 기업의 대응 방식보다는, 관련 용산구 사회적경제 조직이 팀을 이뤄 대상기업이 홍보할 ESG, CSR 소재를 발굴해 예상되는 성과를 제시한다면 더 큰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① 한국철도공사 그룹 제안 가능사업

업체명	제안가능분야	금액	상담창구
한국철도공사	● 아동청·청소년 철도 체험 진로 탐색	(예시) 월 1회X5 명X운임 등X10회 =500만~	한국철도공사·사회적가치처, 미래전략실
코레일관광개발	● 역사내 베희시장(플리마켓)		홍익화: 원호사업 전담이므로 배제
코레일유통	● 장애인 작업장 제품 공급	● 대전충남본부 직원대상 '비대면 사업온라인장터'(20)	
코레일네트웍스	● 노숙인 일자리사업 수행 기관, 또는 기존 수행기 관에 교육상담 등 서비스 협력사	● 철도역공간활용한 미혼마중물 사업장 창업	
		● 철도역공간 저가 임대·주차장에 세차공간, 키친랩, 창업	
	● 역사내 전문점 입점·임대료없 이 매출액X 수수료율 방식지 급: 수도권 전철 1호선3호선4호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 마트·수퍼, 커피숍 공급 원부자재 업체공모에 참여	코레일유통 3층: 전문점 관리팀
		● 사회적경제 단기매장 모집 공모 참여	
	보유 주차장 공간임차(세차 등)		
	직원복지물 온라인(전용)물 입점: 용산사경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병원동행, 아이돌봄, 세차, 가사)		

② 아모레퍼시픽 제안 가능사업

업체명	제안가능분야	금액	상담창구
아모레퍼시픽	● 여성취업창업교육 수행 기관으로 공모 참여: 직 무&상담 통합 서비스)1 인 무점포, 정리수납, 헤 어코디, 온라인쇼핑몰, 단 체급식조리사, 장애인식 개선_코딩지도사	인당 500만X10명 =500만~	● 지속가능혁신팀 ● 아모레 퍼시픽 재단 ●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 유방건강재단
	● 여성이용시설 및 비영리 여 성 단체의 교육장, 상담실, 휴 게실 등의 공간 사업 개선최대	● 5000만원 상당의 리모델링 ● 최대 1500만원 상 당의 온라인 교육실 비 기기	● 지속가능혁신팀
	직원복지물 온라인(전용)물 입점: 용산사경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병원동행, 아이돌봄, 세차, 가사)		

③ CJ CGV 제안 가능사업

업체명	제안가능분야	금액	상담창구
CJ CGV	●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기업 및 단체 공모신청: 임의주제 또는 6개 대기 업 등 요구사회공헌영화 콘텐츠, 환경홍보물, 디자 인참여	● 교육 및 멘토링 혜택 ● 선정사업에 대한 지원금	CSV파트
	● CGV 극장공간에서 베희시장 (플리마켓)참여	CGV_용산사경 (또는 타기관연대 CGV 로비 정기 임차하여 조직에게 제공)	CSV파트
	●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CGV매장에 입점		
	직원복지물 온라인(전용)물 입점: 용산사경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병원동행, 아이돌봄, 세차, 가사)		

④ 삼일회계법인(오리온, 용산드래곤즈 참여) 제안 가능사업

업체명	제안가능분야	금액	상담창구
삼일회계법인	● 용산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 아동청소년 목적사업법 인의 기부금 처리 등 회계 투명성 자문: 2022년 7 월 공고, 10월 컨설팅 수 행 예정:	● 자문비 무료	삼일미래재단: T.709-0548
민관자원 봉사조직 :용산드래곤즈	● 용산구청 복지원팀 (T.2199-7072)_ 용산자원봉사센터_또는 ●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퍼시 픽복지재단·CJ CGV, 코레일네 트웍스, HDC신라면세점, 국민 건강보험공단(용산지사), 오리 온재단, 숙명여자대학교:		
오리온재단	● 초등생 조직지원사업에 공급 업체 참여		
	직원복지물 온라인(전용)물 입점: 용산사경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병원동행, 아이돌봄, 세차, 가사)		

용산SE 함께가치

①용산구 사회적경제 교육 네트워크 첫 협업사업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경제 투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함께 준비했어요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다. 어떤 일이든 서로 힘을 합하면 훨씬 쉽게 해결된다는 뜻이다. 용산구 사회적경제기업들도 백지장을 함께 맞드는 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 유사한 분야별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함께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협업사업들을 작지만 소박하게 한 걸음씩 해나가고 있다. 그 중 6차년도에는 함께 가치를 만들어가는 교육과 돌봄 분야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네트워크 활동을 조명해본다.

용산구 교육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의기투합

“우리 같이 사회적경제 투어 한번 해볼까요?”

용산구에서 교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뭉쳤다. 이름하여 '용산구 사회적경제 교육 네트워크(이하 용산구 교육 네트워크)'. 용산구 교육 네트워크는 용산구 사회적경제기업 중 교육 콘텐츠를 보유한 기업들이 모여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는 모임이다. 2021년 초 첫 모임을 시작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후 다른 지역 선배 교육기업을 초대해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첫 협업사업으로 의기투합한 게 '용산구 사회적경제 투어'이다.

사회적경제 투어는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사회적경제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사업이다. 이미 많은 지역에서 시도된 바 있지만, 용산구 교육 네트워



크에서는 이 투어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지역의 특색과 기업의 장점을 담은 사회적경제 투어를 만들어 보기로 마음을 모았다. 협업사업에 함께 하기로 한 곳은 교육협동조합 온지곤지, 다사리협동조합, 단꿈협동조합, 용산역사문화사회적협동조합, 톡투미다밥사회적협동조합 총 5개 기업이었다.

함께 준비하며 더 알차진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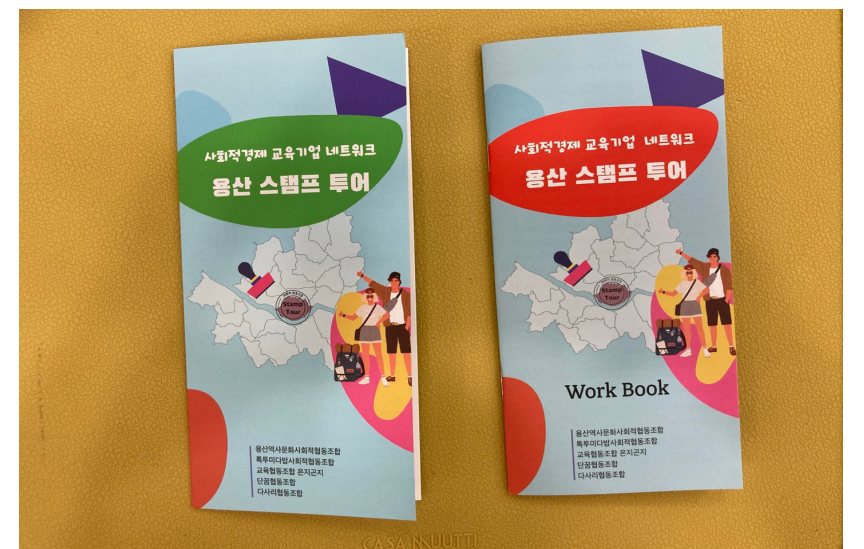
첫 협업사업을 위해 머리를 맞댄 기업들은 먼저 투어 시간, 장소, 프로그램 등을 고려해 투어 코스를 짜고, 각 기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점검하였다. 용산구가 가진 지리적 특성도 프로그램 기획 시 고려사항이었다. 용산구는 지리상 서울의 중심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 오기에도 편한 지역이다. 하지만 남산을 끼고 있어 높은 지대가 많아 예상외로 이동에 고려해야 할 점도 많았다. 몇 번의 코스 수정을 거쳐 용산구 사회적경제 투어는 2개 코스로 최종 결정되었다. 코스를 정한 후에는 투어에서 이용할 워크북도 제작했다. 워크북 기획은 평소 해방촌 주민들을 위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출판사업도 하는 교육협동조합 온지곤지가 맡았다. 몇 번의 회의와 수정을 거쳐 사회적경제 투어의 리플렛과 워크북이 완성되었다. 워크북에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소개와 투어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소개가 들어있고, 참가자들이 투어 동안 핵심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각 기업에서 찾은 사회적 가치를 스탬프로 모을 수 있는 알찬 구성이 담겨있었다.



사회적경제기업 간 상호협력 확대·사회적경제 가치 확산

많은 이들의 협력으로 준비된 사회적경제 시범 투어는 2021년 10월 30일과 11월 6일 두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용산구 소재 중학교에 다니는 6명의 학생이 A코스와 B코스에 각각 3명씩 참가했다. A코스는 톡투미다밥사회적협동조합의 다문화 교육을 위한 라자 코끼리 인형 만들기 체험으로 시작해 용산역사문화사회적협동조합의 마을탐방을 통해 지역의 역사를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교육협동조합 온지곤지로 이동해 자원순환 체험활동을 하는 코스였다. B 코스는 단꿈협동조합 한지공예 체험을 한 후 용산역사문화사회적협동조합의 마을 탐방에 참여하고 다사리협동조합으로 이동해 연극체험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분위기도 시간이 갈수록 참가한 청소년들의 활력으로 한결 화기애애 해졌다. 물론 아쉬움도 있었다. 기업의 사정으로 인해 다사리협동조합이 참여하지 못했고, 시간 분배의 미숙함으로 충분히 쉬는 시간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낳았다. 1차 투어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2차에 반영하고, 2차에서 부족한 점은 이후 진행할 투어에 반영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 투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고민해야 할 지점도 많았다. 어떻게 참여자를 모집할 것인지, 동선은 어떻게 더 편하게 변경할 것인지, 코로나 및 안전 문제는 어떻게 더 신경 쓸 것인지,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내에 사회적경제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의 과제를 남겼다. 첫 협업사업이라 성과와 함께 아쉬움도 있었지만 용산구 교육 네트워크는 이번 투어를 통해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사회적경제를 알리고,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스스로의 교육 프로그램을 시험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다양한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개별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경제기업 간 상호협력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내 사회적경제 가치를 확산할 수 있었다.



용산SE 함께가치

②용산구 사회적경제 돌봄 네트워크 협업



2021년 용산구 사회적경제 돌봄SOS 지역사회 포럼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다. 어떤 일이든 서로 힘을 합하면 훨씬 쉽게 해결된다는 뜻이다. 용산구 사회적경제기업들도 백지장을 함께 맞드는 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 유사한 분야별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함께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협업사업들을 작지만 소박하게 한 걸음씩 해나가고 있다. 그 중 6차년도에는 함께 가치를 만들어가는 교육과 돌봄 분야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네트워크 활동을 조명해본다.

용산구는 서울시 전체 25개구 자치구에서 시행되는 통합돌봄서비스인 돌봄SOS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돌봄SOS사업은 긴급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용산구의 경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네트워크인 '용산구 사회적경제 지역사회돌봄 네트워크'가 돌봄SOS사업을 맡아 운영 중이다. 용산구는 특히 돌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음식, 집수리, 빨래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협업해 새로운 형태의 돌봄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용산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는 서울시 돌봄SOS센터의 사업 추진 과정과 방향을 들여보고 지역의 돌봄SOS사업의 진단 및 과제를 살펴보는 '2021년 용산구 사회적경제 돌봄SOS 지역사회 포럼'을 12월 13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서울시 돌봄SOS센터 사업추진 과정과 향후 방향

1부에서는 서울시 돌봄SOS센터 광역추진단 이희동 단장이 서울시 돌봄SOS센터 사업추진 과정과 향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 단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시설과 병원의 장기요양 병상 이용 비중의 과다로 지역통합 돌봄이 필요한 상황"으로 진단했다. 지역통합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곳(자가,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는 것이다. 그는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돌봄, 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돌봄이 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역통합 돌봄의 강화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돌봄SOS센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단장은 2021년에는 돌봄SOS사업 참여기업 간 업종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업종별 분과를 만들고 있으며, 2021년 11월 기준 먹거리 기업(16개 업체), 주거편의 기업(30개 업체), 재가돌봄 기업(6개 업체) 등 업종별 광역 추진을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참여 업체를 늘려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업을 바탕으로 2022년에는 자치구 돌봄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자치구 및 권역 단위 50+보람일자리사업 연계를 진행 예정이며, 먹거리 부분 비용 절감을 위해 배송 관련 부분을 IT(돌봄) 케어 기반 사회적경제 배송 모델 개발, 친환경 다화용기 및 식기세척사업 개발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이 외에도 주거편의와 관련해서는 마을관리소 개발(지역 내 마을관리소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SH와 LH 관련 집수리 사업 참여, 사회주택 관련 집수리 사업 참여, 에너지 개선 사업 참여, 저장 강박 관련 사업 모델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 중이다. 마지막으로 이 단장은 "다른 지역에 가서도 용산구가 롤모델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만큼 잘 운영되는데 비해 용산구의 지역통합 돌봄의 성과가 외부에 많이 공유되지 않아 아쉽다"며 광역단위의 네트워크 참여를 독려했다.

용산구 사회적경제 돌봄SOS사업 참여 기업 사례

그렇다면 용산구의 사회적경제 돌봄SOS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이날 포럼에서는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진행하는 다양한 돌봄서비스 사업의 사례들이 소개되었다.

① 주거편의 서비스 지원 - 한동화 더불어함께건축협동조합 이사장

용산구는 지역 특성상 빈부격차가 심한 지역이다. 해방촌 등 산동네의 경우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이 많아 여전히 집수리 돌봄이 필요하다. 주거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날씨가 더운 여름에는 저장강박증이 있는 가정을 청소하는게 쉽지 않았지만 그런 수고 덕분에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까지 되었다. 오래되고 낙후된 가정 청소 방역을 진행하다 보면 벌레가 많아서 청소 후 옷 주머니에서 벌레가 나오는 경우도 다반사다. 힘들기도 하지만 나이 든 어르신들 가정에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



② 정리수납 지원 - 박혜선 정리하는 언니들 대표

주거편의 서비스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정리수납 지원을 했다. '정리하는 언니들'은 2020년 센터에서 진행한 주민기술학교 정리수납 수료생들이 만든 조직으로 함께 봉사활동도 하고 협동조합 설립도 준비 중이다. 용산구청의 요청으로 정리수납이 필요한 어르신 가정 2곳을 연계해 자원봉사로 정리수납을 지원했다. 또한 가정은 87세 어르신이 혼자 사시는 집이다. 10평 남짓한 작은 방안 켜켜이 쌓여있는 짐을 밖으로 꺼내기 시작했는데 집을 들어가는 골목을 가득 채울 만큼 짐이 쌓였다. 작은방 하나를 정리하는데 정리수납 선생님 7명이 6시간 넘게 함께 작업해서야 끝마칠 수 있었다. 이 집 어르신은 서서 활동하기가 불편하신 분이어서 정리하면서 앉아서 꺼내고 넣을 수 있도록 짐을 아래쪽으로 수납해 사용자분이 편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한 정리만이 아닌 사용자를 위한 마음이 느껴지는 정리수납이었다. 오랜 시간 봉사활동 해주신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하다.



③ 일시재가 서비스 지원 - 김미선 사회적협동조합 인사랑케어 이사장

인사랑케어는 노인장기요양사업, 사회서비스사업, 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다. 2008년부터 방문요양, 방문목욕사업을 시작했으며, 2012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일시재가 서비스 매출은 2020년 대비 2021년도에 2배 정도 증가했다. 돌봄서비스 사업은 기업에 큰 이윤이 발생하기보다는 사회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다.

④ 식사 지원 - 남기문 다사리협동조합 이사장

다사리협동조합은 올해 주 사업으로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의 지역 정착사업과 농산물 등 식재료 공동구매 이용 업체 확대를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돌봄SOS 식사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 우선 일식 7,800원(배달비 포함)이라는 적은 단가로 질 높은 식사 제공이 쉬운 일이 아니기에 비용 절감을 위해 재사용 용기를 구매해 배송 서비스를 하기도 했다. 향후 더 많은 비용 절감을 위해 동종업종과 협업해 다화용기 활용방안 및 공동구매와 같은 사업을 같이 진행하면 좋겠다. 또한 돌봄SOS 식사지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시락 수가 현실화, 돌봄SOS 식사 지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관 협력, 용산 공공도시락의 지역 브랜드화 등을 제안하고 싶다.

포럼 Q&A

Q. 돌봄SOS사업을 진행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 입장에서 의견이 있다면?

현재 일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 광역 추진 업무 참여가 어렵다. 돌봄SOS사업 수익만으로는 인력 투입이 어렵다. 사업이 좀 더 안정적으로 확대 지속하려면 민간협력이 꼭 필요하다. 비용 절감, 일정 소득이 보장되어야 인력 고용 가능하다.(남기문 이사장)

Q. 돌봄SOS사업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돌봄, 커뮤니티 케어 사업인데요. 용산형 지역 돌봄 모델은 어떤 것일까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으로 큰 그림으로 나아가는게 맞다. 용산의 지역 특성 상 타 구에 비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다. 현재 돌봄SOS사업이 복지 서비스 수준이다. 돌봄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돌봄서비스 이용 실적이 많이 다르다. 예를 들면 강서구의 경우 동행지원, 일시재가서비스 이용자가 많다. 현재 용산구는 식사지원 서비스 참여업체가 많아서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들에 골고루 사업이 나눠지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식사 지원에 편중되어 있다. 오히려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지역에서 선정하여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고민해봐야 할 사항이다.(김미선 이사장)

Q. 용산구의 내년 계획과 더불어 사회적경제와 어떻게 협력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민간협력간의 소통 기회를 더 많이 마련하고자 한다. 현재 동 주민센터에 돌봄SOS사업 담당자 배치가 이루어지면 주민센터와 기관뿐만 아니라, 용산구 돌봄 네트워크 구축 관련해서도 우리 분과(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라든지 다른 분과와도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앞으로 지속해서 소통할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다.(조현중 주무관)

용산SE 주간 기념행사 2021년에도 힘내요, 용산구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주간은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을 기반으로 사회적기업의 날(7월 1일)을 기념하는 주간이다. 매년 1주일간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개최하여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사회적경제와 착한 소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오고 있다. 2021년 사회적경제 주간을 맞아 용산구에서도 용산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주관으로 사회적경제 주간 기념행사 "힘내라! 사회적경제"를 진행했다. 다채롭고도 뜨거운 그 현장을 소개한다.

#SE주간행사① 용산구 사회적경제 플리마켓

7월 첫째 주 사회적경제 주간을 맞아해 지역 주민들에게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자 용산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와 용산지역자활센터 공동주관으로 사회적경제 플리마켓을 진행했다.

행사 첫날인 7월 1일에는 아름다운가게 숙대입구역점에서, 2일에는 행복중심 용산생협 아현매장, 8일과 9일 양일 간에는 만리서재에서 플리마켓이 열렸다. 플리마켓에는 전통 매듭으로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두시공예협동조합', 이주여성들이 스스로 자립을 위해 만든 '톡투미다밥사회적협동조합', 후암동 주민들의 기술력으로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드는 '후암공방'과 '후암밥상',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로 유명한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29일', 서울용산지역자활센터의 청년사업단 '청년 베이커리'가 참여했다.



플리마켓 기간 가장 인기를 끌었던 제품은 후암공방의 에코백과 두시공예협동조합이 제작한 마스크 줄. 후암밥상의 컵 과일과 대만 샌드위치 역시 당일 매진일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톡투미다밥사회적협동조합의 모니카 인형 역시 많은 사람들이 구매했다. 모니카는 다양한 인종과 생김새에 대해 배우고 다문화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만들어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인형이다. 29Days에 반값 생리대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마시는 차냐고 물을 만큼 예쁜 디자인을 자랑해 준비된 수량이 항상 매진될 만큼 인기가 좋았다. 청년 베이커리의 제과는 버터와 프랑스 밀가루를 듬뿍 넣어 만들어 관심을 끌었다. 4일 간 진행된 플리마켓에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아름다운가게와 만리서재에서 진행한 플리마켓 판매금액의 10%는 용산교육복지센터 다문화 아동을 위해 기부하였다. 이번 플리마켓은 사회적경제의 인식 증진과 기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SE주간행사② 용산구 사회적경제 영화제

사회적경제 주간에는 용산구 사회적경제 영화제 '함께 보는 행복의 경제학'도 진행하였다. 영화제는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에서 운영하는 한옥 카페 만리서재에서 양일간에 걸쳐 열렸다. 8일은 용산구 지역 주민들과 함께, 9일은 용산구 사회적경제 기업 종사자들과 함께 두 차례 걸쳐 상영되었다. 영화제에서는 영화 '행복의 경제학'을 관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영화 '행복의 경제학'은 우리에게서 오래된 미래로 잘 알려진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Helena Norberg Hodge)의 또 다른 저서인 '행복의 경제학'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부작용인 집중화와 양극화를 극복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역화를 제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화에서는 세계화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지구와 사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세계화에 관한 8가지 불편한 진실'이라는 주제로 풀어간다.



영화제 첫날인 8일에는 지역 생협 활동가, 마을 공동체 활동가, 협동조합을 준비하다 센터와 인연을 맺은 지역 주민, 용산지역자활센터의 사업단에 참여하는 지역 청년 등 용산구에 거주하는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해 영화를 함께 보고 각자 느낀 점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에서의 활동과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하고,

세계화의 문제 해결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지도 함께 고민해 보았다.

둘째 날인 9일에는 용산구 사회적경제 기업 종사자들과 함께 '행복의 경제학' 저자이자 감독인 헬라나 노르베리 호지와 온라인 줌으로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의 김신동 이사장의 통역으로 진행된 만남에서 헬라나 노르베리 호지 감독은 '행복의 경제학'을 저술한 당시와 이후의 변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문제점, 세계 많은 활동가들과 진행하고 있는 지역화 운동의 현황 등을 전해주었다. 이어 지역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들의 질문에도 마음을 담아 답변을 해주었고, 앞으로도 자신이 진행하는 지역화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둘째날 영화제에는 교육협동조합 온지곤지, 드림트리빌리지, 남산아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인사랑케어, 용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영화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하였고, 참여 인원들에 대한 사전 건강 상태 점검 공지와 참여시 발열 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을 최대한 관리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SE주간행사③ 사회적경제 응원 뮤직비디오

2021년 사회적경제 주관을 맞이해 용산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는 또 하나의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사회적경제 영역에 종사하는 사회적경제인들을 응원하는 뮤직비디오 제작이 그것. 센터에서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작게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행사를 준비했다. 사회적경제 응원 뮤직비디오는 가수 이한철의 노래인 '슈퍼스타'를 사회적경제인들이 함께 부르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다. 영상에는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29일 심재윤 이사, 용산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조정옥 센터장, 서울로 마을 닥터 목공 협동조합 안태홍 이사장, 톡투미다밥사회적협동조합 이레샤 이사장, 두시공예 협동조합 공영희 이사장, 서울용산지역자활센터 이재용 실장, 사회적협동조합 인사랑케어 김미선 이사장, 행복중심 용산생협 박대정 이사장 8명의 사회적경제인들이 참여했다. 뮤직비디오 참가자들은 "사회적경제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슈퍼스타에게 이 노래를 바칩니다"는 멘트를 시작으로 슈퍼스타 노래를 함께 불러 감동을 안겨 주었다.



<슈퍼스타>

- 이한철 -

지난날 아무 계획도 없이 여기 서울로 왔던 너
좀 어리둥절한 표정이 예전 나와 같아
모습은 까무잡잡한 스포츠맨 오직 그것만 해왔던
두렵지만 설레임의 시작에 니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너만의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게 무엇이 됐든
후회 없지만 산다면 그것이 슈퍼스타

널 힘들게 했던 일들과 그 순간에 흘렸던
땀과 눈물을 한 잔에 마셔 버리자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너만의 인생의 슈퍼스타

코로나19 극복기

위기의 시대, 슬기로운 사회적기업가로 살아가는 법



#적자 기업에서 탈출하기

대학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하고 음악으로 재능나눔을 위해 2013년 개인 학원을 시작으로 이듬해 법인 '드림트리빌리지'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문화예술 교육 및 사회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사업 초기 드림트리빌리지의 주 활동은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이었습니다. 음악 관련 욕구가 있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선발하여 지속해서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드림트리스쿨'을 비롯하여, 노숙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자립을 위해 결성한 홈리스밴드인 '봄날 밴드' 활동 지원, 시니어를 위한 '멋쟁이시니어합창단' 운영, 필리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며 생활하는 청소년들의 음악교육 지원, 청각장애인들의 뮤지컬 공연을 위한 음원 제작 지원 등이 바로 그 활동들입니다. 이 외에도 실용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음원 앨범 공연 등의 콘텐츠 기획 사업 등을 수익사업으로 진행했지만, 소년소녀가장, 새터민, 이주민, 한부모 가정 등 우리 사회에서 일명 '취약계층'이라 불리는 이들에 대한 나눔활동이 주다 보니 기업의 재정상황은 늘 어려웠습니다. 몇 년간 제 급여를 받지 못하고, 개인 대출로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사무실 월세가 연체되어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대로는 어렵겠다는 마음으로 2016년, 안정적인 비즈니스모델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료 교육사업이 주였던 사업영역을 장비 대여(음향, 영상)와 영상물 제작으로 확장하며 더디지만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이성교

드림트리빌리지 대표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그러나 안정도 잠시, 곧 다시 위기가 닥쳤습니다.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가 주 원인이었습니다. 계획되어 있던 교육 및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수익도 다시 급감했습니다. 손 놓고만 있을 수 없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으로 바뀌는 시장환경에 발맞춰 비대면 시스템을 갖추는데 기업의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영상 분야의 사업을 확장하면서 용산구 교육박람회 운영, 사업설명회, 시상식, 공연 등 비대면 영상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빠른 대응 덕분에 드림트리빌리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매출이 급증하고 인력이 확대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데는 앞서 겪은 여러 번의 실패가 반면교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드림트리빌리지가 위기를 극복해가는 법

코로나19 위기는 잘 넘겼지만 올해 우리는 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코로나 특수를 누렸던 영상사업이 축소되고, 시스템 마련을 위해 투자했던 비용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업 앞에 놓인 어려운 과제에도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함께 파이팅 하자며 의지를 높이는 직원들이 있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소설미션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사람'입니다. 여기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많았기에 수평적 관계를 통해 그들이 조직에서 주체로 성장하길 바랐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의 물을 직원들이 함께 논의해서 정하도록 하고, 직원들이 실패할 수 있는 환경은 제공하되 늘 뒤에서 백업할 준비를 했습니다. 조직의 현황을 전 직원들과 공유하려 했고, 재정적 어려움에도 직원들의 복지(생일, 어버이날 휴가 제공, 관혼상제 15일 휴가 제공, 주4일 근무제 도입 등)에 신경을 썼습니다. 이런 오랜 노력은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올해 위기상황에서 직원들은 조직의 어려운 상황에 공감하고 함께 이겨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원들이 자기가 속한 기업에 애사심이 생기면 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드림트리빌리지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사람에게 투자해온 이유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도전은 현재진행형

드림트리빌리지는 올해 그동안 축적해온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 브랜드를 안착시키고 외부 홍보를 통해 우리 사업을 더 적극 알리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에는 가치 있는 따뜻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물론, 취약계층의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해 더욱 친절하고 따뜻한 문화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드림트리빌리지와 함께한 청년들이 우리와 함께 성장해서 어디 가서나 환영받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때가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지금이 그때입니다. 드림트리빌리지가 100년 가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희망을 놓지 않고 직원들과 함께 한발씩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많은 응원 바랍니다.

6차년 용산구 사회적경제를 말한다



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는 지난 2022년 5월 31일 센터 전문위원들을 모시고 6차년 용산구 사회적경제에 대한 평가와 향후 용산구 사회적경제 및 행정의 역할 등에 대해 전문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 시 2022년 5월 31일 오전 11시
장 소 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참여자 김진숙 (주)케어유 전문위원
 김지송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 지점장
 정운관 다가치포럼 사회적협동조합 경영본부장
 최병호 고려대학교 Human-inspired AI 연구소 교수
 조정옥 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센터장

각 영역 전문성 토대로 사회적경제기업 돕는 전문위원들

김진숙 최근까지 과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일하다 퇴사하고 현재는 사회적기업 (주)케어유 전문위원과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센터와는 용산구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회계와 세무 교육 및 컨설팅을 하며 인연을 맺었습니다.

최병호 고려대학교 Human-inspired AI 연구소 교수로 활동 중입니다. 연구소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셜임팩트 창출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센터와는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특구사업 때 뵈고 인연이 되어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 성장기 기업 고도화를 지원하는 등의 역할로 제안을 받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운관 다가치포럼 사회적협동조합 경영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몇 년간 신나는조합을 통해 서울시 사회적경제 실태조사에 참여하면서 용산구 사회적경제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에 몸담고 있으며, 다수의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경험을 토대로 용산구 초기 기업들에 대한 교육과 자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지송 현재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 지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재단은 서울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비롯해 개별기업의 성장을 위해 교육컨설팅, 협업화, 시설개선 등 종합지원을 합니다. 더불어 지역상권 브랜딩 등으로 최근 업무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 용산지점이 지원하는 중소기업 중 사회적기업들도 있고 자연스럽게 센터와도 지역자원 연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6차년에는 센터와 연계해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시 정리수납 전문가로 구성된 '정리하는 언니들'과 함께 사업장 정리수납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용산지점에서 진행한 여러 컨설팅 중 유일하게 만점을 받을 정도로 성과가 좋았습니다. 지역기업인 투투미다밥사회적협동조합 과도 사회적 가치 활동의 일환으로 용산구 내 어려운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밀키트를 공동제작해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김지송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 지점장



최병호

고려대학교 Human-inspired AI 연구소 교수

용산구만의 지역 아젠다 발굴 통해 중장기 비전 세워야

조정옥 논의에 앞서 용산구 사회적경제 현황과 센터의 활동에 대해 짧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산구에는 188개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업종·부문·의제별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유기적으로 상시적·사안별 협력활동과 협업사업을 통한 성과를 만들어 내고 지역문제 해결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은 2016년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단으로 시작해 2019년 통합지원센터가 문을 열면서 2020년부터 관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더불어 다양하게 구성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꾸준한 확장과 소통, 연대와 협력을 통한 사회적경제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회적경제 통합법인(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기도 합니다. 6차년에는 지역 기업들의 성장 지원을 위한 컨설팅 진행,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사업 강화, 지역사회 인식 확산 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다른 자치구와 달리, 각 영역별로 센터 전문위원을 별도로 위촉해 현장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원을 받는 동시에 센터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7차년에는 용산구에 포진한 다수의 혁신기업, 성장기 기업간의 협력을 통해 용산구만의 대표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최병호 센터장님의 개괄적인 평가와 고민 잘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서울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살펴보면서 들었던 고민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존재 이유이자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아젠다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역마다 인구, 주변환경, 자원 등이 다르기에 해결해야 할 아젠다도 달라야 하는데, 대다수 지역이 쓰레기 문제나 주차문제 해결을 꼽습니다. 중앙정부가 하든 자치구가 하든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차이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지역별로 우리 지역만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고 해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용산구의 지역 아젠다는 무엇일까요? 용산구만의 특징적인 취약계층은 누구일까요? 지역 아젠다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성장 전략도 역할도 달라질거라 봅니다. 인물과 시스템을 만드는게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인데, 그 인물과 시스템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건지 정하려면 이런 지역 아젠다 선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센터에서 7차년도 사업을 고민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합니다.



정운관

다가치포럼 사회적협동조합 경영본부장



조정옥

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센터장

김지송 최병호 전문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최근 2~3년간 용산구 사회적경제의 아젠다가 불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이태원 상권 전체가 심각한 상황이었을 때, 용산구 전체가 이태원을 어떻게 살릴건지를 고민하고자 '이태원 살리기 추진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지역 상권의 일원이자 지역 활성화의 주체인 사회적경제가 참여해야 함에도 여기에 사회적경제 관계자 누구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내부 의지는 있으나 정보가 지역사회 내에서 공유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어려운 환경이지만 지속해서 행정에 제언하며 신뢰를 쌓아가 지역 아젠다를 발굴하고 당당히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한 주체로 사회적경제가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정운관 앞서 이야기한 부분들에 공감하면서도 센터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행정의 이해 부족, 위탁운영의 한계, 부족한 예산 등)를 인정하는 속에서의 단기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너무 이상적으로 먼 미래만 생각한다면 당장은 앞에 닥친 과제를 놓치기 쉬우니까요.

조정옥 전문위원들이 지적해주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용산구만의 지역 아젠다를 잘 발굴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작년에 센터에서는 용산지역에 미등록 이주아동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법이 바뀌어 이런 아이들도 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주어졌지만, 고등학교 3학년 이후로는 무국적자로 국내에서 추방당해야 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에 대한 방과후돌봄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마을기업들과 서울시 지원을 받아 돌봄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사업의 만족도는 높았지만 지속가능성이 부족했습니다. 센터에서는 더 다양한 지역주체들과 연계해 이 문제를 지역 아젠다로 설정하고 지역사회에서 적극 공론화시키고자 합니다. 대기업 후원을 연계하거나 성장기 사회적기업들의 참여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청과도 더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센터가 중간다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의 긴밀한 협력과 동시에 민간의 힘 키우는 노력도 필요

최병호 아쉬운 점이 정치환경 등에 따라 정책 방향도 영향을 받는데, 아무래도 센터의 경우 행정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으니 독립적인 역할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적 자금을 줄여나가고 다른 자원을 연계하거나 지역 기업들의 영향력을 높이는 등 민간의 힘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비전을 잡고 예산 배정 등을 새롭게 설계하는 방향도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김진숙 맞습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외부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지속하려면 행정의 지원에만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는 등 민간 스스로가 힘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민자산화, 자조금용 등 미약하지만 그런 자생적인 체계를 만들어가는게 센터의 역할이라 봅니다. 앞서 얘기한 지역 아젠다를 설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해 문제를 공론화 시켜가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조정옥 용산에 인권조례가 없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그런걸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 보고 싶습니다. 얘기하신데로 서울시 등 외부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노력도 하고 있는데, 너무 거기에 매몰되면 행정업무에 빠지기도 해 현재 주어진 사



김진숙

(주)케어유 전문위원

업 예산을 잘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한 듯 합니다. 앞으로 용산구의 인·물적 자원을 최대한 연계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게 센터의 7차년 계획이기도 합니다.

김지송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경우 사업의 기회를 스스로 만들기보다는 기회가 올 때 까지 기다리는 경향이 있어 수익성이 저조한 곳이 많아 상담을 하며 아쉬움을 느낍니다. 재단에서는 금융지원 외에도 비금융지원도 제공하는데 이런 정보는 기업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가능한 사회적경제가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정보를 센터에 적극 공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금융의 경우 사회적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용산에서도 성공 모델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현장기업들, 시민체감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고민해야

김지송 최근 ESG 경영이 붐인데요, 이런 흐름이 사회적경제에는 좋은 기회입니다. 공공기관들이 생각보다 지역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서울



지역 또는 용산구 사회적경제 전체 정보를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운영되는 플랫폼이 있긴 하지만 민간에서 활용이 쉽지 않은 구조라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제품을 홍보물품으로 제안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홍보물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거나 패키지 상품이 없어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지금의 기회를 잘 살렸으면 합니다.

정운관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사회적경제도 적극 고민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에 사회적경제 광고를 한다거나, 자원봉사를 원하는 시니어들을 연계해 활동을 독려하는 등 다양한 대상을 고려해 그들이 원하는 걸 잘 찾아내고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병호 사회적경제기업 외에도 지역의 소셜벤처도 생태계 내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센터가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면 시민들을 위한 더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질거라 여겨집니다.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제 역할 하도록 행정 지원 필요

김진숙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데, 여기에 센터장도 참여시키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사회적경제 발전계획 등 좀 더 발전적인 논의를 하는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관 현장기업들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인시의 경우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임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한 개뿐입니다. 아직 센터가 만들어지지 않은 지역도 있고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센터의 수가 더 확대되길 바랍니다.

조정옥 최근에 센터에서 구청에 공동영업단을 제안했습니다. 주 활동은 공공기관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공동영업 하는 겁니다. 구청이나 센터는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조율하며 문을 열어주는 역할이고, 현장기업들이 실행하는 시스템이죠. 개별 사회적기업의 힘만으로 어려운 일을 센터가 앞장서하고자 합니다.

김진숙 용산구 산하기관들에 필요한 물품을 조사해서 행정이 연계해 주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용산구 사회적경제 DB

(2021년 12월 기준)

총계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계	인증	예비				
188	27	16	11	22	129	7	3

사회적기업 : 27개소 (인증 사회적기업 16개소, 예비사회적기업 11개소) (2021년 12월 기준)

연번	구 분	업 체 명		사 업 내 용
1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오피스메카(주)	김서진	- 재생토너 제조 판매 - 잉크 토너 전산용품 복사용지 등 판매
2		(주)레드스톤시스템	박치영	- 컴퓨터, 모니터 등 제작 · 판매
3		사회적협동조합인사랑케어	김미선	- 노인재가장기요양 사업 - 노인돌봄, 가시간병 방문서비스
4		Assista(주)	정진성	- 친환경 전시 행사 프로젝트
5		두바퀴희망자전거협동조합	김연설	- 폐자전거 수집 및 수리, 판매 - 관내 자전거 이동수리
6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곽호근	- 도시락 제조 및 배달
7		예술과미음	이상호	- 문화예술 공연 및 교육사업
8		(주)상상우리	신철호	- 퇴직자 교육프로그램 및 컨설팅 제공
9		(주)드림트리빌리지	이성교	- 실용음악 교육서비스
10		(주)지오스캔	기정석	- 지반조사, 물리탐사, 자원조사관련 기술용역서비스, GPR 탐사 등
11		(사)정가악회	천재현	- 국악공연
12		(주)요벨	박요셉	- 공공기관 사내 카페 운영
13		희망나르미사회적협동조합	심양욱	- 운수업
14		(주)한국갭이어	최다영	- 해외봉사, 인턴십, 워킹홀리데이, 진로
15		(주)29일	홍도겸	- 반값 생리대 판매사업
16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정경록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17	지역형 예비(서울시)	두시공예	공영희	- 광고, 상품디자인 관련 제조 판매(22. 5. 9)
18	부처형 예비 (고용노동부)	(주)크래프트콤바인	이기용	- 업사이클 관련 제품 디자인 제조 및 교육(22.4.26)
19		(주)몽작소프로젝트	이찬영	- 음악 관련 교육 행사 및 공연 기획
20		교육협동조합 온지곤지	남종려	- 서점, 복합 문화공간
21		(주)인디씨에프	박정화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22		(주)어라운드랩	김보은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23		서울도시재생사회적협동조합	이종필	- 시설운영관리, 집수리, 조사연구
24	부처형 예비 (문화체육관광부)	(주)율리아	조현민	- 업사이클제품 제조 및 교육
25		용산역사문화사회적협동조합	황혜원	- 역사문화해설 지역사 교육 및 콘텐츠 개발
26		(주)옴니아트	이상동	- 문화, 예술 관련 제조업
27	부처형 예비(국토교통부)	(사)걷고싶은도시만들기 시민연대	이영범	- 도시문화와 역사 보존, 창조

사회적협동조합 : 22개소 (2021년 8월 기준)

연번	사회적협동조합명	대표자	업종
1	사회적협동조합 인사랑케어	김미선	재가장기요양사업, 사회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2	사회적협동조합 SE바람	강대성	지역사회 컨설팅 및 교육, 홍보
3	용산역사문화사회적협동조합	황혜원	역주민을 위한 역사문화해설사업
4	성심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정방	학교매점 운영, 학생복리 증진, 교육지원사업
5	사회적협동조합 평화물결	이은주	민주 시민교육
6	사회적협동조합 사랑해주오	이윤수	동물의료기관(동물병원) 설립 운영
7	사회적협동조합 사람마음	최현정	트라우마 치유사업
8	한국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안혜경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9	희망나르미 사회적협동조합	심양욱	운수업
10	꿈과희망사회적협동조합	최봉실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	이종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2	스포츠융복합 사회적협동조합	전정훈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3	사회적협동조합 빈둥	신서영	주거공동체 사업, 교육 및 컨설팅
14	생명나무 사회적협동조합	김정만	지역아동센터 운영
15	톡투미디어사회적협동조합	페라리헬레세게이레사달라니	요리 및 문화사업, 교육사업, 생산물품판매사업, 이모나리체험사업
16	상생의 경제 용산사회적협동조합	남기문	지역의 사회경제적 재생을 위한 '공동배달 사업'
17	서울실내환경진흥사회적협동조합	김선윤	학교등 다중이용시설 냉난방기 필터교체, 청소 및 세척 관리업무
18	요리를통한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	이옥정	식문화 보급, 상가 활성화
19	위이어 사회적협동조합	안시준	지역 소상공인 인턴십 연계 사업
20	용산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지석원	어린이집 위탁 운영
21	하늘장레 사회적협동조합	조남두	취약계층 및 무연고자 장례지
22	사회적협동조합 실버무빙케어서비스	이춘희	노인동행 서비스

일반 협동조합 : 129개소 (2021년 12월 기준)

연번	구분	협동조합명	수리(인가)일	대표자	업종	유형	주요사업
1	일반협동조합	민간조사관 및 경비 경호사업 협동조합	2013.01.08	이홍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사업자	민간조사원 경비경호사 권역중진 국내 민간조사 및 경호산업 정착화
2	일반협동조합	한국신교협동조합	2013.02.06	유기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사업자	신교활동 활성화
3	일반협동조합	아름다운거리조성협동조합	2013.02.08	유대현	제조업	사업자	광고간판업자의 공동이익실현
4	일반협동조합	협동조합 인재개발뱅크	2013.02.12	남기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사업자	일자리창출위한 자활사업 등
5	일반협동조합	한국다문화협동조합	2013.03.19	정동주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자	다문화가정 홍보 등
6	일반협동조합	한국 가두 전시판매업 협동조합	2013.03.21	권순일	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	노점상인 권역중진
7	일반협동조합	소셜허그협동조합	2013.03.21	석보라	제조업	사업자	디자인전공자 유휴인력 활용사업
8	일반협동조합	한국 재봉기기 소상공인 협동조합	2013.03.26	정재근	제조업	사업자	재봉업 진흥

CHAPTER 12

용산구 사회적경제 DB

연번	구분	협동조합명	수리(인가)일	대표자	업종	유형	주요사업
9	일반협동조합	용산파크자이 관리협동조합	2013.04.18	신순성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사업자	아파트관리 갈등조정
10	일반협동조합	한국친환경약초차유미울 협동조합	2013.04.23	조우분	농업, 어업 및 임업	사업자	약초재배농민 권익증진
11	일반협동조합	협동조합 한국장애우공동체	2013.05.01	안종영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사업자	장애인 자활사업
12	일반협동조합	웰빙피아 협동조합	2013.05.08	고영수	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	좋은 식품구입
13	일반협동조합	한반도 교육취업 협동조합	2013.05.23	이기준	교육 서비스업	사업자	대안학교 커리큘럼 제공 등
14	일반협동조합	제인앤케이스케어 협동조합	2013.05.27	정진국	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	저하상가 공동판매
15	일반협동조합	더코리아뉴스 협동조합	2013.05.27	박종철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자	외교, 통일분야 심도있는 취재, 사설 게재
16	일반협동조합	우리상포장례협동조합	2013.05.28	김중옥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직원	상포서비스
17	일반협동조합	한반도관광 협동조합	2013.05.31	조항원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사업자	철보산 관광 등
18	일반협동조합	우리씨파방 협동조합	2013.07.02	이상화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사업자	PC운영 컴퓨터 도소매
19	일반협동조합	한류여행사 협동조합	2013.07.04	박정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사업자	한류여행상품개발
20	일반협동조합	협동조합 미술공방 사이	2013.07.19	이우경	제조업	사업자	원목가구 제조, 폐가구 재생 등
21	일반협동조합	피어라풀꽃 협동조합	2013.08.19	정안두	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	노동직거래
22	일반협동조합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2013.08.19	김신동	교육 서비스업	사업자	연구조사사업 정책개발사업 교육 훈련사업 출판사업 학술 및 화의활동
23	일반협동조합	동근햇빛발전 협동조합	2013.08.21	송원근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사업자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소 건립 및 판매사업
24	일반협동조합	용산미울신문 협동조합	2013.09.16	홍승현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자	주민이 직접 만드는 신문
25	일반협동조합	마케팅유통 협동조합	2013.10.01	고현	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	중소사업자 판로개척 지원
26	일반협동조합	법률소비자 협동조합	2013.10.01	성재훈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자	법률지식 능력 공유
27	일반협동조합	다같이농자 공동육아 협동조합	2013.11.06	이길원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사업자	문턱낮은 어린이집 사업
28	일반협동조합	미당 협동조합	2014.01.06	변한식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자	서울불고기 명품브랜드사업
29	일반협동조합	에스아피씨에이(Sipca)협동조합	2014.01.10	임무상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사업자	pc부품
30	일반협동조합	정지경제연구소 협동조합	2014.01.16	유명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자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
31	일반협동조합	정보디자인 협동조합	2014.02.18	곽승원	교육 서비스업	사업자	정보디자인 서비스 및 교육훈련
32	일반협동조합	특능 신용산 협동조합	2014.03.06	엄영길	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	황금상황버섯 재배 및 판매
33	일반협동조합	클홈협동조합	2014.03.13	임은숙	제조업	사업자	공예품 제조업
34	일반협동조합	다사리협동조합	2014.03.27	남기문	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	장제조 및 판매사업
35	일반협동조합	상일컨설팅 협동조합	2014.04.17	이상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자	경영컨설팅
36	일반협동조합	지티지(GTG)외식업협동조합	2014.06.02	권현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자	외식업 프로젝트, 예비 외식업 창업지원 및 교육, 외식업 레시피 개발, 식자재 개발 유통사업
37	일반협동조합	작은흔레운동협동조합	2014.06.11	진민자	교육 서비스업	사업자	작은흔레문화 보급, 웨딩컨설팅, 인력공급 및 흔레 예식사업
38	일반협동조합	우리니눔협동조합	2014.07.04	이수경	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	반찬가게 사업, 도시락 배달 사업
39	일반협동조합	오방살롱협동조합	2014.07.08	배해일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자	음료 및 식품 판매
40	일반협동조합	강섬유흥협동조합	2014.08.18	김연순	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	강섬유, 연강선재, 철선제품 공동구매 및 판매
41	일반협동조합	한양 청소 및 건물관리 협동조합	2014.09.24	최봉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소비자	청소 및 건물관리 서비스업
42	일반협동조합	대한민국 서화 미술인 협동조합	2014.10.10	박용고	제조업	사업자	제조업 및 도소매업
43	일반협동조합	도시공감협동조합 건축사사무소	2014.10.22	이준형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직원	도시재생연구 사업, 도시재생 모델개발 및 적용사업, 건축사 및 건축서비스 관련 사업
44	일반협동조합	통일코리아협동조합	2014.10.29	박예영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다중이해관계자	미디어 서비스업
45	일반협동조합	한국자연요법치유사 협동조합	2014.10.29	이승웅	교육 서비스업	직원	교육 서비스업

연번	구분	협동조합명	수리(인가)일	대표자	업종	유형	주요사업
46	일반협동조합	전국행정사협동조합	2014.10.29	하경식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사업자	서비스업(행정사업)
47	일반협동조합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	2014.11.10	이채연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다중이해관계자	#NAME?
48	일반협동조합	우리모두기행복한 용문시장협동조합	2014.12.11	안효숙	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	농수산물 도소매업
49	일반협동조합	3D상상 프린팅 협동조합	2015.01.13	김영한	제조업	사업자	제조, 판매업
50	일반협동조합	원호로 문화상공인 협동조합	2015.03.26	정희수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자	카페 운영, 문화 행사·프로그램 운영, 잡지 발행 등
51	일반협동조합	대안건축공간 협동조합	2015.04.23	김용주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자	대안적 건축공간 기술개발 및 연구
52	일반협동조합	인문 협동조합 상인행	2015.06.19	남종훈	교육 서비스업	사업자	한문고전대중화 사업한문교육기관지원 사업
53	일반협동조합	히울협동조합	2015.07.09	박소영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자	북카페운영 및 출판업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54	일반협동조합	아이티기업협동조합	2015.08.06	이태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자	소프트웨어 개발 및 무선통신장치 제조
55	일반협동조합	전국종합무도인 협동조합	2015.09.02	최덕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사업자	무도인지도자 양성, 무도회관 건립
56	일반협동조합	한국 아이티판매 협동조합	2015.09.25	라인업시스템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자	공동 사업과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과 관리 운영
57	일반협동조합	서울드림부동산투자협동조합	2015.11.27	공영우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자	부동산 매매, 임대사업부동산개발사업 및 부동산 콘텐츠 개발사업
58	일반협동조합	에스에이(SA)결혼중매 협동조합	2015.12.02	김병식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다중이해관계자	1.결혼중매사업 2.결혼과 관련한 사실, 용품, 서비스의 공급 및 중개 또는 컨설팅 등 부대사업
59	일반협동조합	에코푸드협동조합	2016.02.16	이기훈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자	친환경 학교 단체 급식사업, 카페테리아 운영
60	일반협동조합	한국자동차정보센터협동조합	2016.05.02	박미정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자	자동차 매매업 및 경매장업
61	일반협동조합	엠피쿠퍼협동조합	2016.05.02	이재승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자	식품, 생활용품, 건강기능보조식품 판매
62	일반협동조합	두바퀴희망자전거 협동조합	2016.05.20	김연설	제조업	직원	자전거 수리 및 재생 사업
63	일반협동조합	아리 끼리 협동조합	2016.07.01	김대호	운수업	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
64	일반협동조합	행복한 공간 협동조합	2016.07.15	김종유	제조업	사업자	집수리, 인테리어, 리모델링 사업
65	일반협동조합	한국 커피 무역 협동조합	2016.08.01	최치훈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자	커피 무역 사업
66	일반협동조합	비팩협동조합	2016.08.02	박동일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자	농수산물 유통사업 K-food사업 이동 통신키기 수리 및 중고기기 유통업
67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SE바람	2016.10.06	권세진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다중이해관계자	컨설팅 및 교육, 홍보
68	일반협동조합	힐링마더협동조합	2016.12.02	김혜미	교육 서비스업	사업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치료 교육 사업
69	일반협동조합	협동조합 천주교서울 우리농한강	2017.03.06	김정미	도매 및 소매업	다중이해관계자	농산물 직거래 판매사업
70	일반협동조합	102문화디자인협동조합	2017.04.06	정경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자	문화, 관광, 디자인 등 기획 및 컨설팅 사업전문시장, 원도심 등 도시 재생 및 디자인 사업
71	일반협동조합	한국건축2064협동조합	2017.05.23	오상현	건설업	사업자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 건축관련 행사기획
72	일반협동조합	용산전자랜드컴퓨터협동조합	2017.05.24	김영우	제조업	사업자	컴퓨터 유통 판매 사업
73	일반협동조합	서울키즈패션협동조합	2017.08.23	정효식	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	아동복 제조/ 아동용품 온라인 유통사업
74	일반협동조합	미래혁신교육체합교사협동조합	2017.09.01	이경자	교육 서비스업	다중이해관계자	여성 취,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사업
75	일반협동조합	전국노인장기요양 사업자협동조합	2017.10.30	송정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자	장기요양 및 노인사업
76	일반협동조합	함께돌봄협동조합	2017.11.29	이경락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다중이해관계자	치매인식개선 및 돌봄의 질 향상, 사회적기업 교육 및 컨설팅
77	일반협동조합	50플러스명강사협동조합	2017.12.07	박창보	교육 서비스업	사업자	강사 양성 사업
78	사회적협동조합	용산역사문화사회적협동조합	2017.12.15	황혜원	교육 서비스업	다중이해관계자	1. 지역주민을 위한 역사문화해설사업 2. 지역청소년을 위한 역사문화교육 사업 3. 지역주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79	일반협동조합	아무나건축주 협동조합	2018.01.15	백인화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자	사회주택 공공사업
80	사회적협동조합	성심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018.01.24	이병훈	교육 서비스업	다중이해관계자	학생복지 증진사업, 학생교육 지원사업
81	일반협동조합	관광연구협동조합	2018.02.09	류광민	교육 서비스업	다중이해관계자	학술 연구, 용역 교육, 정보제공, 출판사업

연번	구분	협동조합명	수리(인가)일	대표자	업종	유형	주요사업
82	일반협동조합	서치연치과네트워크협동조합	2018.02.19	계용신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사업자	의료장비 및 소모품의 공동구매 사업
83	일반협동조합	신계동철도주민중심도시재생협동조합	2018.02.21	정금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소비자	신계동 철도부지 소규모 주거정비 사업 추진 및 은퇴자미를 조성
84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평화물결	2018.02.22	이은주	교육 서비스업	다중이해관계자	민주 시민교육
85	일반협동조합	용산문평산뜻박는마을학교협동조합	2018.03.14	권혁문	교육 서비스업	사업자	조합원 공동 물자 가공 생산 , 정비사업, 평생학습 사업 등
86	일반협동조합	후암신시장협동조합	2018.04.02	김종범	도매 및 소매업	다중이해관계자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사업
87	일반협동조합	더불어함께건축협동조합	2018.04.03	한동화	건설업	사업자	집수리, 공동주택사업
88	일반협동조합	전자영상음향협동조합	2018.04.18	박병창	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	유통, 무역, 브랜드 마케팅 사업
89	일반협동조합	그린허그협동조합	2018.04.19	강보경	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	건강식품 생산 및 온라인 판매사업
90	일반협동조합	SLC협동조합	2018.05.03	권오균	건설업	다중이해관계자	연료전자발전사업, 건설업, 무역업 등
91	일반협동조합	두사공예협동조합	2018.05.30	공영희	도매 및 소매업	직원	친환경 재활용 가능 상품 생산 및 친환경 캠페인
92	일반협동조합	실버누리 협동조합	2018.06.05	박상구	운수업	사업자	#NAME?
93	일반협동조합	단꿈협동조합	2018.06.11	김용삼	제조업	다중이해관계자	한자공예 생산 및 교육
94	일반협동조합	해방촌니트패션협동조합	2018.07.18	김종호	제조업	사업자	니트제품 공동 브랜드화, 공동 마케팅 사업
95	일반협동조합	한국아이티연합협동조합	2018.08.22	허훈	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판매수리, 홈페이지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등
96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인사랑케어	2018.09.04	김미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다중이해관계자	노인장기요양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등
97	일반협동조합	한국비영리회계프로그램사업자협동조합	2018.10.08	안재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자	어린이집 회계프로그램 사업
98	일반협동조합	한국비영리회계프로그램사업자협동조합	2018.10.08	안재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자	어린이집 회계프로그램 사업
99	사회적협동조합	꿈과희망사회적협동조합	2018.12.04	최봉실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다중이해관계자	인쇄 및 출판, 바리스타교육 및 커피판매 등
100	일반협동조합	온누리행복드림플러스협동조합	2018.12.04	박광수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다중이해관계자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제공 사업
101	일반협동조합	교육협동조합 온자곤지	2018.12.11	남종려	교육 서비스업	다중이해관계자	지역재생을 위한 문화예술기획사업 및 교육서비스사업
102	사회적협동조합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	2019.02.15	이종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다중이해관계자	도시재생지역 기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소규모 건축 집수리,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및 관리, 주민교육, 지역조사 및 연구
103	사회적협동조합	스포츠융복합 사회적협동조합	2019.03.26	전정훈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중이해관계자	스포츠 융복합
104	일반협동조합	쓰리디트윈 협동조합 (3D Twin Corp.)	2019.05.03	이세원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자	인터넷정보사이트 운영 및 판매사업, 교육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VR, AR 콘텐츠제작업 등
105	일반협동조합	봉제디자인이음협동조합	2019.05.03	이상태	제조업	다중이해관계자	패션의류잡화제조 및 임가공사업, 공동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사업, 패션봉제 기술인 양성사업, 패션디자인 역량강화 지원 등
106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빈동	2019.05.16	신서영	건설업	다중이해관계자	주거공동체 사업, 교육 및 컨설팅
107	일반협동조합	전국스포츠클럽 협동조합	2019.10.15	이일재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사업자	스포츠클럽사업 발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자문 건의, 결의행동신규클럽 컨설팅 및 운영지원과 관련된 사업 등
108	일반협동조합	더커먼즈0099 협동조합	2020.03.24	김종훈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자	지역사회를 위한 공동 자산의 취득 및 투자사업공동자산인 부동산의 개발 및 관리사업 등
109	일반협동조합	용산마을문화 협동조합	2020.03.31	안현숙	교육 서비스업	사업자	지역사회의 역사, 마을문화 관련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의 문화창달역사, 마을문화 관련 사업을 영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110	일반협동조합	사이월드 협동조합	2020.06.26	이나영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사업자	#NAME?
111	일반협동조합	해방촌 주민협의체 협동조합	2020.07.28	하성수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자	도시재생센터 주거지 관리 및 지역 협업 사업
112	사회적협동조합	생명나무 사회적협동조합	2020.08.04	김정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다중이해관계자	지역아동센터 운영
113	일반협동조합	남산아래협동조합	2020.08.12	곽기영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자	도시재생 기반시설 확보, 운영지역에 필요한 교육문화서비스 제공
114	일반협동조합	서울로 마을닥터 목공 협동조합	2020.09.09	안태홍	건설업	사업자	목공사업, 건축물 보수 및 관리사업, 통신판매 사업 등

연번	구분	협동조합명	수리(인가)일	대표자	업종	유형	주요사업
115	사회적협동조합	특투미다법사회적협동조합	2020.11.17	페라첼리세계아리스탈라니	국제 및 외국기관	다중이해관계자	요리 및 문화사업, 교육사업, 생산물품판매사업, 이모나리체험사업
116	일반협동조합	위인유니온 협동조합	2020.11.20	정상규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사업자	1. 문화예술 창작 및 전시 2. 상품 및 콘텐츠 제작 판매 3. 교육사업 등
117	사회적협동조합	상생의 경제 용산사회적협동조합	2021.01.13	남기문	제조업	다중이해관계자	지역의 사회경제적 재생을 위한 '공동배달 사업'
118	사회적협동조합	서울실내환경건강사회적협동조합	2021.01.22	김선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다중이해관계자	학교동 다중이용시설 냉난방기 필터교체, 청소 및 세척 관리업무
119	사회적협동조합	요리를통한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	2021.04.02	이옥정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다중이해관계자	식문화보급, 상가활성화
120	사회적협동조합	위이어 사회적협동조합	2021.04.14	안시준	교육 서비스업	다중이해관계자	지역 소상공인 인턴십 연계 사업
121	일반협동조합	다함께 움직이는 협동조합	2021.04.21	이우식	교육 서비스업	사업자	사회적 취약계층(노인 등) 노인성 질환 사전 예방교육 강사 양성 등
122	일반협동조합	용산파트너 협동조합	2021.05.17	이금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자	장애인 및 취약, 소외계층과 활동 지원사 간 상담지원장애인 및 취약, 소외계층 대상 활동지원 서비스
123	사회적협동조합	용산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2021.07.12	지석원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다중이해관계자	어린이집 위탁 운영
124	사회적협동조합	하늘장례 사회적협동조합	2021.09.10	조남두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다중이해관계자	취약계층 및 무연고자 장례지
125	일반협동조합	후안동 마을공방 협동조합	2021.09.14	서민아	제조업	사업자	공방제품 디자인 및 제조 등
126	일반협동조합	후안동 마을밥상 협동조합	2021.10.28	박은희	제조업	사업자	도시락 공급사업
127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실버무명케어서비스	2021.10.29	이준희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다중이해관계자	노인동행 서비스
128	일반협동조합	케이 푸드 플랫폼즈 협동조합	2021.12.01	김성환	교육 서비스업	사업자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등
129		지एस용산협동조합	2021.12.01	노정권	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	편의점 매장 운영

마을기업 : 7개소

(2021년 12월 기준)

연번	마을기업명	대표자	업종
1	행복중심용산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박태정	생협매장 운영, 조합원 활동, 지역연대사업
2	협동조합 마을공방 사이	이우경	되살림협동조합, 마을쉐어링센터 운영, 생활기술 교육
3	우리나눔 협동조합	이수경	케이터링, 도시락 판매배달
4	다사리 협동조합	남기문	전통장 제조판매, 식당운영
5	(예비)단꿈한지협동조합	김용삼	한자공예 제작 및 교육
6	(예비)더불어함께건축협동조합	한동화	낡은 주택 수리 개축, 집수리 교육, 사회주택
7	용산마을문화협동조합	안현숙	역사 마을 브랜드화

자활기업 : 3개소

(2021년 12월 기준)

연번	자활기업명	대표자	업종
1	사회적협동조합 인사랑케어	김미선	재가장기요양사업, 사회서비스
2	베스트클린 용산	최명희	청소용역, 건물위생관리
3	지एस용산협동조합	노정권	편의점 운영

발 행 처 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퍼 낸 일 2022년 6월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46 한남아이파크 애비뉴 B1
전 화 02-318-5200
팩 스 02-318-5203
홈페이지 www.yse.or.kr
기 획 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씨앤드
디 자 인 이엠실천 02-875-9744

Copyright @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융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www.yse.or.kr

